



참여 협력 영광

서울대 총동창신문

개학 1895년
통합개교 1946년
창간 1976년 4월 24일

www.snu.ac.kr

[월간 제551호] 2024년 2월 15일

02 총동창회 신년인사회
나누고, 헌신하고... '복 짓는 동창회' 출발

03 군산 다문화 사회공헌 활동
3박 4일 동문 단원 3명 동행

04 장거리의도상 받은 정중식 동문
"가난한 죽음을 구하는 것이 나의 소망"

05 주영섭 교수 CES 특강
한국, 최고혁신상 35개 중 14개 차지

신입생 3726명, 일반고가 절반 넘었다 (52.8%)



1월 30일 관악캠퍼스 기동 체육관에서 열린 2024학년도 새내기대학에서 신입생들이 재학생 선배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행사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모교 소통팀

서울 35.4%, 검정고시생 36명
여학생 36.8%, N수생은 26.5%

모교가 2월 초 정시모집 합격자를 발표하면서 2024학년도 입학생 선발을 마무리지었다. 최초 합격생 기준으로 수시모집에서 총 2181명을 선발하고, 정시모집으로 1545명을 선발해 총 3726명의 합격생이 나왔다. 총 924개 고교에서 수시와 정시모집으로 1명 이상의 모교 합격생을 배출했다.

수시와 정시 모집 합격생을 합한 성비는 여학생 비율 36.8%, 남학생 비율 63.2%였다. 여학생 비율이 35.7%였던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했다.

2014년부터 최초합격생 기준으로 39~40%를 기록해온 모교 합격 여학생 비율은 문·이과 통합 수능이 처음 시행된 지난해부터 다소 낮아진 모양새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합격생의 출신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 출신은 수시모집 합격생의 29%, 정시모집 합격생의 44.7%로 합격생 전체에선 35.4%였고, 광역시 출신은 수시 26.9%, 정시 14.5%로 전체의 21.8%였다.

시 출신은 수시 38.0%, 정시 36.6%로 전체 합격생의 37.4%였으며, 군 출신은 수시 6.1%, 정시 4.2%로 전체에선 5.3%였다. 전체 합격생 중 서울시 출신은 지난해(37.2%)에 비해 다소 줄고 광역시와 군 출신이 증가했다.

합격생의 출신 고교 유형을 살펴보면, 수시와 정시 최초 합격생 3726명 중 52.8%에 해당하는 1967명이 일반고 출신이었다. 일반고 합격자는 2022년 48.0%, 2023년 49.7%로 꾸준히 증가해 50%를 넘겼다. 정시 합격생에 한해선 61.9%가 일반고 출신이었다.

수시와 정시를 합해 자사고에선 15%에 해당하는 558명이 모교에 합격했고, 다음으로 영재고(369명, 9.9%), 외국어고(255명, 6.8%), 예술/

체육고(188명, 5%), 과학고(165명, 4.4%), 자공고(100명, 2.7%), 국제고(73명, 2%), 특성화고(10명, 0.3%), 기타 5명(0.1%) 순이었다. 검정고시 출신은 36명이 모교에 합격했다.

근래 들어 모교 합격생 중 고교 재학생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을 합해 올해 재학생 합격자 비율은 69.5%로, 2022년(74.3%), 2023년(70.7%)보다 하락했다.

반면 재수생 비율은 올해 18.7%로 18.3%를 기록한 지난해와 비슷했고, 2022년(14.9%)보다 높았다. 삼수 이상 비율도 2022년 6.8%에서 2023년 7.4%, 올해 8.2%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재수생과 삼수생 비율이 높지 않은 수시모집과 달리 정시모집에서 재수생과 삼수생 합격자 비율이 상승한 영향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N수생이 수능에서 과학탐구II 등 심화 과목을 선택해 재학생보다 10점 정도 높은 수능 점수를 받았다"고 분석했다. >>6면에 계속

지난해 장학금 40억원 모금 익명의 동문 총 8억원 기부

총동창회 장학재단인 관악회가 3년 연속 장학금 기부액 40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141명의 동문이 총 40억 3300여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했다.

지난 연말 관악회엔 기부로 유종의 미를 거두려는 동문들의 온정이 담겼다. 한 동문은 익명으로 장학금 2억원을 쾌척했다. 올해로 10여 년째 총 8억여 원을 기부한 동문이다. 김익모(AIP 23기) 동문은 1억원을 기부해 특지 장학회를 신설했고, 김흥기(농학61-65) 동문은 첫 기부로 1억원을 보내왔다. 강박수(상학62-66) 동문은 3000만 원을 기부했다.

신풍제약 창업주 고 장용택(약학55-61) 동문의 유지를 잇고자 설립된 호월송암재단은 1500만원을 기부하며 기존에 2억1000만원의 장학금이 조성된 장용택 특지에 보탬이 됐다. 지금까지 5800여 만원을 기부하며 아시아 유학생을 지원해온 이병훈(경영81-85) 동문이 1200만원을 추가 기부했다.

또 김규봉(서양화88-93) 동문이 1004만원을 기부했고, 박수만(법학75-79) 동문이 2021년 기부한 1000만원에 1000만원을 보탬했다. 최재호(전기공학75-79)·염미령(의학80-84) 동문 부부도 1000만원을 추가 기부했다. 현해리(동양화08-13) 동문이 1000만원을, 김기선(독문63-67)·손경희(HPM 39기)·최성순(AIP 61기) 동문이 각각 500만원을 보내왔다.

조현오(의학64-71) 동문은 1년의 기부 여정을 마치고 총 1200만원을 조성했으며, 이준복(AMP 81기) 동문은 약정기부 8개월 만에 총 1000만원을 조성했다. 정두영(서양사84-88) 동문도 180만원의 기부 목표를 달성했다.

새해 첫 달엔 특지 및 결연 장학금 기부자들이 추가 기부하며 장학금 확충에 앞장섰다. 김승환(제약80-84) 동문이 2000만원, 이기방(영어교육59-63) 동문이 1480만원, 주식회사 흥국(대표 류명준 동문)이 965만4000원, 김선리(사학64-68) 동문이 600만원을 추가 기부했다.

알림

2024 정기총회 및 제26회 관악대상 시상식

2024년도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정기총회 및 제26회 관악대상 시상식을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4년 3월 29일(금) 오후 6시
- 장소: 롯데호텔서울 2층 크리스탈볼룸(서울 소공동)
- 행사내용: 정기총회 및 관악대상 시상식
- 참가범위: 사전 신청하신 동문 500명 이내 (회비 납부자에 한함)
- 신청방법: 3월 8일(금)까지 사전신청(이름, 학과, 입학연도, 휴대전화번호 기재) 후 참가비 납부
- 신청접수: 문자(1599-7704) 또는 이메일(member@snu.ac.kr)
- 참가비 계좌: 5만원(우리은행 1005-401-137376, 예금주: 서울대총동창회) *입금 시 성함, 학과, 입학연도 표기
- 문의: 총동창회대표전화 02-702-2233

정기총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찬금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 협찬금: 10만원 이상 (계좌는 참가비 계좌와 동일)
- *협찬금을 납부하시면 정기총회 참가비가 면제됩니다. (참가신청 필수)

관악춘추



하임숙
영문91-95
채널A 기획전략본부장
본지 논설위원

수험생을 둔 대부분 가정에 태풍이 한 차례 지나갔을 것이다. 대학가에는 곧 새내기들이 들어올 것이다.

학부모로서 태풍을 온몸으로 겪고 보니 '기본'을 재규정하는 시대라는 점을 실감했다.

문과인 아이가 사립대학 두 곳을 붙었는데 하나가 자율전공학부, 또 다른 하나가 AI학과였다. 문리대를 나온 아버지는 '학문의 기본'을 강조하며 자율전공학부에서 문과 또는 상공 계열 전공을 권유했지만 아이의 선택은 단호했다. 자율전공학부라 하더라도 정보디스플레이를 선택하거나 AI학과를 다니겠다는 것이었다.

종로학원에 따르면 본교를 포함한 소위

다시, 기본

'SKY대학' 인문계 중도 탈락생 수는 2021년 456명에서 2022년 688명으로 50%나 늘었다.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과를 학교 이름만 보고 선택한 학생이 늘어난 결과로 볼 수 있다. 2023학년도 서울대 인문·사회 계열 정시 최초 합격자 중 44.4%가 이과생이었다. '기초 학문'이 징검다리일 뿐 더 이상 기초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해석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의대 열풍'은 그 흐름의 정점이다. 2023학년도 수능에 지원한 N수생의 숫자가 전체 지원자 대비 35.3%로 1996학년도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였다. 직장인, 군 입대자들까지 의사가 되기 위해 N수 대열에 합류한다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다.

그럼 의사가 왜 되고 싶은 것일까. 당연히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쉼 없이 일하는 직업의 안정성이 높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안타까운 건 의사로서의 사명감이 차지하는 지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의사가 되려는 사람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통칭되는 제네라 선언문을 기본 윤리로 여겼다. '이제 직업에 종사하는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이 순간,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로 시작하는 그 유명한 선언문 말이다.

최근 의대 열풍의 이면에는 자녀들의 커리어 플랜을 짜면서 '일주일에 3, 4일 피부 진료를 하는 의원에 근무하면서 비싼 월급을 받고, 나머지 날에는 취미를 즐길 수 있는 좋은 직업군'으로 의사를 규정하는 헬리콥터 맘들이 있다고 한다. 이들은 초등학생 때부터 자녀를 의대반에 집어넣고, 의대에 보내선 인턴만 거치고 전공의 과정은 빠지도록 유도한다고 한다. 당연히 모두 다는 아닐 것이고, 개인의 행복이라는 관점으로 보자면 영 틀린 일도 아니겠지만 그래도, 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당연했던 모든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시대. 기본을 어떻게 재규정하고 발전시킬 것인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별지부록 : 장학금 기부 참여 신청서

나누고, 헌신하고... '복 짓는 동창회' 출발



1월 23일 분회 신년인사회에서 복을 기원하며 시루떡을 잘랐다. 왼쪽부터 박 민 KBS 사장,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정경희 국회의원, 나경원 전 국회의원, 유홍림 모교 총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조완규 전 모교 총장, 본회 김종섭 회장, 허진규·이대순 고문, 이희범 명예회장, 박 진 전 외교부 장관, 오세정 전 모교 총장, 전현철 총학생회장 직무대행.

동문·재학생 170여 명 참석 음대생들 연주·노래로 흥 돋워

“우리 동문들이 복을 많이 받도록, ‘복 짓는 동창회’를 만들겠습니다.”

본회는 1월 23일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170여 동문 및 재학생이 함께한 이날 김종섭 회장은 2024년에 서울대 동문의 사회 공헌 활동을 더욱더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청룡의 기운을 받아 힘찬 한 해 되길 바란다’며 밝은 얼굴로 인사를 나눴다.

오찬 행사로 열린 신년인사회엔 본회 김종섭(사회사업66-70) 회장, 조완규(생물48-52)·이대순(법학53-57)·손경식(법학57-61)·허진규(금속공학59-63)·김경한(법학62-66)·정운찬(경제66-70)·오세정(물리71-75) 고문, 이희범(전자공학76-71) 명예회장, 김인규(정치69-73) 수석부회장, 이경형(사회66-70)·변주선(영어교육60-64) 상임부회장, 임현진(사회67-71) 총동창회장 추대위원장, 이선진(농가정69-73) 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단대·지방지부·직능지부·특별과

정 동창회장,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모교에선 유홍림(정치80-84) 총장, 김기현(철학78-83) 발전재단 부이사장, 김성규(국문81-85) 교육부총장, 김재영(토목공학82-86) 연구부총장, 윤영호(의학84-90) 기획부총장, 박원호(정치89-93) 기획처장 등이 함께했다. 조희연(사회75-80) 서울시교육감, 박진(법학74-78)·정경희(역사교육80졸) 국회의원, 나경원(사법82-86) 전 국회의원 등 공직에 몸담은 동문도 찾아왔다. 박민(정치82-86) KBS 사장은 관악언론인회 회장으로서 참석했다. 또 재학생 대표로 전현철(농경제사회19입)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을 비롯해 모교배구부 학생, 식전 음악회 공연자인 음대 재학생들이 참석해 함께 오찬을 즐겼다.

신년인사회에 앞서 김다미 모교 음대

관현악과 교수와 재학생 연주자들이 신년음악회를 선보였다. 비발디 ‘사계’의 선율을 모티브로 강렬한 에너지를 전달하는 아스트로 피아졸라의 ‘사계’로 첫문을 열었다. 이어 모교 성악과 학부·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으로 구성된 8중창단이 연거푸 6곡을 선보이며 활기를 더했다. 호연에 보답하듯 동문들은 앙코르를 연주했다.

김종섭 회장은 개회사에서 새해 동창회 운영 방향을 알렸다. 김 회장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서울대를 졸업한 게 큰 힘이 됐다. 서울대 졸업장은 타 대학 졸업장과 차이 나야 하기에 우리 사회를 위해 뭔가 헌신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동창회를 운영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동창회에 사회공헌위원회를 만들고,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에 동문들이

참여한 소식을 비롯해 지난해 튀르키예 지진 성금을 모금해 전달한 일, 올해 초 남부주동창회를 통해 전쟁 난민돕기 음악회를 연 일을 소개했다.

김 회장은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신년 인사를 하면서 내가 어떤 복 받을 일을 했는지 자문자답 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동문들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가족음악회, 골프대회 등 동창회가 앞장서서 좋은 나눔 행사를 많이 개발하겠다”며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유홍림 총장은 “최근 서울대 이사회에 김종섭 총동창회장님을 이사로 모셨다. 서울대 법인 이사회에 현 동창회장이 같이 함으로써 서울대와 동창회가 실질적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보겠다”고 말해 큰 박수를 받

았다. 또 “내년 2025년은 서울대 종합화 50주년이다. 미래 불확실성에 대처하는 능력은 융합에서 나오는 만큼, 예전의 교양교육이 아닌 공통 핵심 역량을 키우는 융합 교육 플랫폼을 준비해 종합화 50년을 맞는 내년 3월 1일 출범할 예정”이라며 “대학의 융복합 플랫폼 교육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교에선 이날 6개월여 제작기간을 거쳐 갖 완성된 홍보 영상을 가장 먼저 동문들에게 선보였다.

이날 권혁한(보대원75-77) 전 보건대학원동창회장과 홍형욱(가정관리69-73) 전임 생활과학대학동창회장이 단대·대학원 동창회 회장으로서 동창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공로패를 받았다. 사정상 불참한 홍형욱 동문의 공로패는 홍 동문의 자녀와 정혜원(의류71-75) 생활대동창회장이 대리 수상했다.

대선배들의 덕담에 이어 재학생 대표로 단상에 선 전현철 총학생회장 직무대행이 “인생은 선배님들처럼”이라고 외치자 동문들은 흐뭇하게 웃으며 건배했다. 본회는 참석자 모두에게 보디용품 세트를 증정했다. 박수진 기자



(왼쪽) 권혁한 전 보건대학원동창회장과 홍형욱 전 생활대동창회장이 공로패를 받았다. 사정상 불참한 홍 전 회장 대신 정혜원 생활대동창회장과 홍 전 회장의 딸이 단상에 올랐다. (중앙, 오른쪽) 김다미 기악과 교수를 비롯한 음대 재학생들의 기악과 성악 공연.

신년인사회 덕담<요지>



이희범 부영 회장·본회 명예회장
“좋은 지도자 든 총동창회, 잘될 겁니다”
자고로 본인도 잘 해야 하지만 후임 선정을 잘 해야 합니다. 나라도 발전하려면 더 좋은 지도자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서울대총동창회는 좋은 지도자가 나와서 앞으로 잘될 것 같습니다. 유홍림 총장님 말씀 들으니 학교도 올해 새로 일신유일신 할 것 같습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청룡의 기를 받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조완규 전 모교 총장·본회 고문
“이팔청춘, 매일 서울대로 출근하지요”
누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 ‘매년 바뀌는 나이를 어떻게 압니까. 단지 내가 태어난 해는 압니다. 1928년 이 팔청춘’이라고 합니다. 1946년 서울대 예과에 들어가서 오늘날까지 서울대 땅을 밟고 살고 있습니다. 총장 끝날 때쯤 국제백신연구소 유치위원장을 제게 맡겼어요. 서울대 연구공원 안에 5000평짜리 국제백신연구소 건물을 짓고, 제가 후원회 이사장이 되어 그동안 후원금을 모았는데, 빌게이트 재단이 20년간 1억5000만 달러를 냈습니다. 그 돈으로 결국은 후진국 어린이들한테 공급할 아주 값싼 코로나 백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보통 3만~4만원짜리 코로나 백신을 2000원짜리로 개발한 거죠. 제가 관계하고 있는 국제로타리클럽에서 그동안 조성한 20만 달러로 네팔에 공급했고, 지금 다시 또 20만 달러를 조성 중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본회 고문
“첨단 산업 시대, 모교 경쟁력 끌어올려야”
지금 세계는 첨단 산업의 시대로 들어가고, 글로벌 경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대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울대의 경쟁력을 매우 끌어올리는 데 큰 성과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변주선 대림성모병원 행정원장·본회 상임부회장
“모두의 힘과 경력을 합칩시다”
2024년, 서울대와 서울대총동창회가 큰 발전을 이룩해서 대한민국의 발전에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는 뜻으로, 우리 모두의 힘과 경력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서울대의 발전과, 총동창회의 발전 그리고 동문 여러분의 발전을 위해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종합화 50주년 모교의 대도약 기회로”
유홍림 총장님께서 1975년 종합화가 시작됐다고 하셨는데, 제가 75학번입니다. 저희가 관악에서 첫 1학년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종합화를 서울대 대도약의 기회로, 위해서!’라고 건배하겠습니다. 1975년 서울대 종합화 50주년이 서울대 대도약이 되기를!



박진 전 외교부장관·국회의원
“대한민국 외교 서울대가 책임집니다”
법대 74학번은 금년에 입학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저희에겐 참 역사적인 해가 되겠습니다. 서울대 선배 동문 여러분께서 성원해 주신 덕분에, 외교부 장관직을 마치고 이제 다시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이 G7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8강 수준의 위상과 국력을 가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동문 여러분들의 성원과 격려 덕분입니다. 그리고 제 후임 장관으로 법대 75학번 조태열 장관이 새로 들어왔고, 1차관은 영문학과 출신 김홍균 차관, 2차관은 외교학과 출신 강인선 차관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외교는 서울대가 책임지겠습니다!



박민 KBS 사장·관악언론인회 회장
“서울대인, 자랑스러움을 넘어 사랑받길”
지난해 11월 13일 KBS 사장에 취임했습니다. 이제 두 달만 남은 신출내기 사장이라 굉장히 고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사 창립 50주년을 맞은 KBS는 창사 이래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울대에서 배웠던 많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공영방송으로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대 출신이라는 점 덕분에 여기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늘 서울대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2024년엔 서울대인들이 자랑스러움을 넘어서, 모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서울대인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두 개 언어 유창하게 쓸 수 있잖아요” 다문화 학생들에 심어준 자신감



1월 16일~19일 3박 4일간 군산대에서 '동문과 함께하는 군산 SNU공헌단'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1. 김태균 글로벌사회공헌단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 문정매 동문 단원이 아이들에게 붓글씨를 써주는 모습. 3. 임실 치즈테마파크에서 다문화가족 부모와 자녀들이 체험공간을 둘러봤다. 4. 개회식에 총동창회 이경형 상임부회장, 송우엽 사무총장, 김동규 사무차장 등이 참석해 격려했다.

동문 3명 멘토로 참여 총동창회 4000만원 지원

1월 16~19일 3박 4일의 일정으로 군산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 40여 명을 대상으로 '동문과 함께하는 군산 SNU공헌단'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의 '다문화 SNU공헌단 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정과 이주배경 청소년 가족을 대상으로 기획된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총동창회에서 4000만원을 지원하고 재학생 멘토와 별도로 동문 단원 3명이 멘토로 참여했다.

총동창회는 지난해 여름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의 라스 봉사활동을 후원한 바 있다. 서울대 동문 모임이 단순 친교를 넘어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는 취지에서 그동안 국내외 봉사활동을 지원하고 동문 참여를 독려했다.

16일 개회식에는 총동창회 이경형 상임부회장, 송우엽 사무총장, 김동규 사무차장이 참석해 공헌단 단원들과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을 격려했다.

동문 단원으로 참여한 김태훈(대학원15-18) SNUH벤처 메디컬AI연구소장은 "형식적인 자원 봉사활동이 아니라 실제로 만나게 될 멘티들을 심분 고려해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매일 밤 늦게까지 다음날 프로그램을 점검하는 등 어떤 봉사활동보다 체계적으로 진행됐다"며 "총동창회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글로벌사회공헌단, 군산대와 긴밀하게 협력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정매(대학원03-07) 서울국제학원 원장도 동문 단원으로 참여해 "졸업 후 늘 모교에 부채 의식을 느꼈는데 금번 활동을 통해 조금이나마 나눌 수 있다

는 것에 마음이 뿌듯했다"며 "금번 봉사활동을 통해 가문의 큰집과 같은 동창회의 역할을 알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군산대 김승찬 팀장은 "참여자에게 군산 지역 인재로서 미래를 꾸며나갈 희망을 심어줄 수 있었다. 다른 대학 학생과 함께 공헌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다"며 사회공헌 실천에서 지역의 대학 간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모교, 다문화 공헌사업 꾸준히 해와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은 그동안 '사농상호문화공헌단'을 통해 서울시 관악구, 경북 경주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육 나눔 활동을 펼쳐왔다. 사농상호문화공헌단은 모교 유학생들로 이뤄져 있다. 최근 경주에서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세 번째 교육공헌 활동을 마쳤다.

이번 군산 프로그램은 모교의 다문화공헌 활동을 전라권역으로 확대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행사 프로그램은 모교 재학생 후배 22명이 수개월간 매주 화요일 저녁에 모여 만들었다. 군산대 단원 7명도 화상회의 등으로 함께 준비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주제는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이주배경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꿈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었다.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40여 명과 함께 '미래의 나'를 설계해보고 꿈과 진로에 대한 얘기를 나누며 다각적인 방법으로 3박 4일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들은

재미있는 게임과 꿈 멘토링 활동을 진행했고, 가족과 치즈 만들기 체험 행사 등을 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인생 로드맵 설계에서 멘토들과 깊이 소통할 수 있었고, 학과 체험부스에서 미래에 대해 고민할 수 있어 좋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 내가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 해야 할 일을 깨달았다", "학과 체험부스에서 많은 학과를 경험해보고 직접 해볼 수 있어서 인상적이고 재미있었다", "꿈을 다시 생각하고 찾아볼 수 있어서 좋았다"는 소감을 남겼다. 아이들과 함께한 학부모들도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 잘 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됐다", "딸과 함께 진로를 고민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좋았다"는 후기를 남겼다.

김태균 글로벌사회공헌단장은 "서울, 경주부터 시작해 군산으로 모교의 공헌 활동이 확대됐다"며 "군산대와 협력해 이주 배경 학생을 위한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엄기욱 군산대 학생처장도 "서울대와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기 희망한다"며 "우리가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 돕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문화 배경 동문 단원 강의 인기

이번 활동에 동문으로 문정매(대학원03-07) 서울국제학원 원장, 김태훈(대학원15-18) SNUH벤처 메디컬AI 연구소장, 유중욱(SGS 38기) 로아랩 대표가 멘토로 참여했다.

문정매 동문은 "동창신문에서 재능 기부 봉사자 모집 기사를 보고 알게 됐다"며 "이주경험이 있고 다문화청소년 교육을 하고 있는 당사자라 이 프로그램의 적임자라고 생각했다"고 참가 동기를 말했다.

문정매·김태훈 동문은 둘째날 지식·경험을 공유하는 TED 토크 시간에 강연자로 나와 본인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줬다. 중국 흑룡강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하다 모교 대학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문정매 동문은 다문화 배경을 공유한 강연자로 관심을 받았다. 문정매 동문은 "인백기천(人百己千)"을 써서 즉석에서 아이들에게 선물하기도 했다. '인백기천'은 최치원의 아버지가 중국으로 가는 아들에게 당부한 말로 '남들이 백번 노력하면 천번 노력하라'란 뜻이다.

김태훈 동문은 '의료 AI를 품은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의료실 공간물품 체크 AI 개발 일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누가 보면 방향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하게 공부한 것이 잘 연결돼 큰 가치를 만들어냈다"는 인생 경험을 술회하기도 했다. 김 동문은 한국디지털미디어고 해킹방어과 졸업 후 연세대에서 천문우주와 응용통계를 공부했으며 서울

대에서 융합과학부 박사 수료 후 카이스트 인공지능연구소 연구원, 서울대병원 의생명연구원 등으로 활동했다.

TED 토크 시간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유중욱 동문은 '인생 로드맵 설계' 등의 시간에 문과생이 공대생이 된 과정, 서울중랑구다뮤직 풋살팀 감독 등의 경험을 나누며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들의 진로 길라잡이가 돼 주었다.

재학생 중에서도 몽골에서 유학온 에르텐후르 너문사나(간호학과) 단원이 '다문화 학생의 장점은 두 개의 언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제로 강연에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너문사나 학생은 "한국어와 몽골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면서 다른 언어에 대한 자신감 뿐만 아니라 언어 외 일에서도 큰 자신감이 생겼다"며 "다문화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이니 충분히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재학생 22명 3박 4일간 봉사

군산 SNU공헌단 일정은 △16일 멘티와 멘토가 함께하는 팀별 미션수행을 시작으로 △17일 멘토 TED Talk,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체험 프로그램 △18일 인생 로드맵 설계, 전공학과 부스 체험 △19일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다문화 교육 봉사를 위해 정수민 학생 등 22명의 재학생이 단원으로 봉사했으며, 임 저스틴 희준(환경대학원 교수) 지도교수, 이은경 글로벌사회공헌단 전문위원 등이 수고했다.

모교 글로벌사회공헌단은 2013년 2월에 창설된 이래 대학 내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허브조직으로 사회적 책임과 전문성을 토대로 사회공헌 교육과 국내외 사회공헌 실천을 하고 있다.

김남주 기자



문정매 김태훈 유중욱

“가난한 죽음 구하는 게 나의 소명”



정중식 (의학90-96)
성남의료원 중환자학과 전문의

1월 29일 성남의료원에서 만난 정중식 동문은 “가난한 죽음을 구하는 게 소명”이라고 했다. 그 말을 하는 그의 얼굴은 신념에 찬 소년 같았다. 정 동문은 30대를 넘나들고 거칠고 술 취한 행려병자와 보내고, 40대에는 아프리카 땅에 응급의료 시스템을 이식하는 데 집중했다. 지금 일하는 성남의료원도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 코로나 중환자를 돌보고 싶어 지원했다고 했다. 의대동창회가 지난 연말 ‘장기려의도상’을 준 배경이다. 정 동문은 앞서 ‘이태석상’도 받았다. 나이 들어 봉사하는 의사는 제법 봐왔지만, 젊을 때부터 뜻을 갖고 인술을 펼치는 이는 처음이다. 안정적인 서울대병원 교수직도 사직하고 전세로 살면서, “가난한 생명”을 구하는 그 마음은 어디서 왔는지 궁금했다.

-역대 장기려의도상 수상자 중 가장 젊은 것 같습니다.

“사람 이름이 붙은 상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이태석상도 그랬고요. 얼떨결에 받기는 했지만, 앞으로 삶이 더 조심스러워요. 사소한 잘못이라도 하면 그분들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것이니까 조심하면서, 그리고 겸손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의사가 돼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야지, 하는 꿈이 있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버님(정영무 사학과49학번)이 이화여고 역사 선생님이셨는데, 과외도 하셔서 꽤 풍족하게 살았어요. 그러다 초등학교 3학년 무렵부터 과외가 금지되고, 돈을 잘못 쓰셨는지, 집이 폭삭 망했습니다. 6학년 때는 신문 배달도 했으니까요. 크면 경영자가 돼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은 막연하게 있었죠. 의사가 돼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의사가 되셨어요.

“고등학교 때 ‘사랑이 꽃피는 나무’라는 의대생 드라마가 방영됐어요. 즐겨 보면서, 의사보다는 의대생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최재성씨가 주인 공이었는데, 그분이 아프리카로 가면서 시즌1이 끝나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성향이 이과 쪽이었고, 그 드라마 영향도 받아 의대에 입학하게 됐죠.”

-의대 생활은 재미있었나요?

“관악캠퍼스에서 예과 2년 동안 학생 회장을 맡았습니다. 학생 운동이 활발하던 시절이죠. 즐겁게 보냈어요. 본과 와서는 2년은 방황하고 3학년 때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를 한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2기인데, 응급 의학을 선택한 계기는.

“새로운 의학 분야에 대한 호기심이 컸고, 뭔가 모험적인 것 같았어요.”

-행려병자와의 인연도 응급실 근무하면서 시작된 건가요?

“그렇죠. 전공의 4년 차 때 보라매병원에 파견을 나갔는데, 4개월 내내 응급센터 내 행려병실을 전담했습니다. 누가 시킨 건 아니고, 하고 싶었어요. 가서 보니, 행려병실은 20병상 있는데, 인턴 1명 간호사 1명밖에 없고 완전히 방치돼 있었어요. 인턴 지도하고, 간호사에게 밥도 사주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강릉에서 공중보건의 활동할 때도 행려병자들을 돌봤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동하시나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행려 환자들을 정말 사랑해서라기보다는 행려 환자들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싫었어요. 왜 저렇게 차별하고 못되게 굴까 싶었죠.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인권 개념이 약했을 때이기도 하고요. 공중보건의 시절 신앙을 가진 것도 영향이 컸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게 나의 관심사고, 나의 소명이구나 그런 확신이 들어서 더욱 매진하게 됐죠.”

-공중보건의를 마치고 안양생병원으로 가셨는데, 서울대병원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있었나요?

“지난해 작고하신 박상은 쌤병원 원장님이 멘토 같은 분이세요. 모교 병원 응급의학과 주임교수님의 만류에도 가게 됐는데, 가서 제가 할 일이 많지 않았어요. 사실 제가 응급의학과 2기이기 때문에, 모교 병원에 남아 후배들을 지도하는 게 당연한 코스였습니다. 주임교수님께 무척 죄송했죠. 그렇게 의국을 나왔는데, 쌤병원에는 행려병자들이 거의 없었어요. 계속 있어야 하나 고민하던 차에, 감사하게도 주임교수님이 전화를 주셔서, 보라매병원에 자리가 있는데 갈 수 있겠냐 하셔서 보라매병원 조교수로 가게 됐죠. 보라매병원에서 행려병자들을 전담하는 보직은 없었지만, 제가 자원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그들을 진료했습니다. 교수다 보니 연구실적이 필요했는데, 제 역량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해 계속 일하기는 힘들었죠.”

정 동문은 보라매병원에서 행려병자를 담당하던 시절, 흡리스 정책을 개선하는 데도 크게 이바지했다. 행려병자에게 등본상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 지원이 어려웠던 제도를 바로 잡았다.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할 능력이 안 되거나,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 것이다.

정 동문이 교수직을 더는 할 수 없다고 느끼던 때, 아이티 대지진 사건을 보면서 국제보건 활동에서 역할을 찾았다. 의대 선배인 월드비전 백남선(의학 83-87) 구호팀장을 만나 구체적인 조언을 들었다.

“처음에는 말리셨어요. 제 아이가 두 살 때이기도 했고요. 이야기를 쭉 들어보시더니, 보건학 공부를 먼저 하라고 하시더군요. 네가 아무리 교수였고 의사였어도, 그런 마음만 갖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시면서요. 보라매병원을 사직하고 1년 영어 공부 후, 2012년 존스



뇌경색 혈전용해술 후 회복한 환자와 함께

보라매병원서 행려병자 진료 전담

카메룬 응급의료센터 개원에 앞장

장기려의도상·이태석상 받아

“카메룬 돌아가 응급의료체계 구축할 것”

홉킨스 대학원 보건학 석사 과정에 들어갔죠. 11개월 동안 80학점을 이수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석사를 마치고 바로 카메룬 야운데 응급센터 부원장으로 가신 건가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원장 공모가 나왔어요. 하지만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 왜냐하면 임상 의학을 하기보다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재난 현장이나 개발도상국의 1차 보건의료 쪽에 관심을 두고 있었으니까요. 귀국할 때까지 공모가 안 된 모양입니다. 야운데 국립응급센터는 코이카(KOICA)에서 지어준 병원입니다. 여기서 거시 연락이 오고, 급기야 외교부 개발협력 국장까지 ‘가 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원장 타이틀은 맞지 않으니, 부원장 자격 정도로 가겠다고 했죠. 원장은 현직인이 해야 지속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지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

“카메룬은 연간 보건 지출 규모가 1조 5000억원(우리나라는 180조 6000억원)에 불과한 빈국입니다. 인구 200만인 수도에도 빈듯한 응급실이 없었어요. 전기로 작동하는 의료장비는 한 대도 찾아볼 수 없었고요. 2013년 카메룬에 가서 1년 7개월간 응급센터 개원 준비를 했죠. 봉사단원들이 23명이나 함께 해주셔서 열악한 환경임에도 계획대로 진



야운데 국립응급의료센터 전경.

행돼 2015년 6월 개원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력을 통해 한 나라의 국립응급센터를 개원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던 일이에요.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카메룬 응급의료체계 개발을 위한 일입니다. 응급센터는 그냥 하나의 병원일 뿐이거든요. 응급환자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병원만 있어서는 어렵죠. 응급의료전문인력, 이송체계, 통신, 재난대응시스템, 응급의료정보 등 모든 요소가 갖춰져야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응급의료 전문 의를 키우는 일이 중요한데, 작년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모교 병원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

“카메룬의 병원엔 선지불 시스템이예요. 그리고 환자가 의료물품을 조달해 와야 하는 구조였어요. 약은 물론이고 주사기, 간호사가 끼는 장갑까지도요. 준비가 안 되면 진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시스템에서 응급의료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중증환자에게는 미리 조달해 둔 물품들을 이용하고 검사도 후불로 진행하는 ‘선치료 후지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미수금 발생 비율이 높아질 거라 예상됐지만, 제가 귀국하기 전까지 유지했습니다. 또 카메룬의 국민 영웅인 리고베르트송이라는 축구 선수와의 일화가 기억에 남아요. 지금 카메룬 축구대표팀 감독이죠. 그 선수가 뇌출혈로 쓰러져 우리 병원 응급 치료를 받고 파리 병원으로 후송돼 회복했습니다. 파리로 후송될 때 수백 명이 병원을 둘러싸고 구호 외치고 노래 부르고, 캡틴 일어나라고 응원하던 장면이 잊히지 않아요. 덕분에 카메룬 응급의료 많이 발전했다고 장관이랑 대통령

이 감사인사를 전하왔어요.

야운데를 출발해 두알라로 가던 열차가 전복돼 6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열차사고가 있었는데, 우리 응급센터의 체계적인 활동으로 인명 피해를 줄인 일도 기억에 남습니다.”

-카메룬에 갔을 때 자녀도 어린데,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아내의 희생이 컸죠. 가족들과 입국한 첫날 밤, 만네 살도 안 된 아들이 고열이 났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갈 만한 병원이 없어 덜컥 겁이 났고, 가족에게 미안하더군요. 카메룬에 있는 6년 8개월 동안 저는 말라리아에 5번, 아들은 4번 걸렸어요. 중학생이 된 아들은 아빠가 이제는 안정적인 의사로 활동하길 바라는 눈치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들려주세요.

“코이카의 지원으로 카메룬 야운데 응급센터의 응급의료체계 2단계 개발 사업이 2023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됩니다. 자문 역할을 하면서, 2029년 그 사업이 마무리되면 카메룬으로 다시 가고 싶어요. 2013~2020년까지 카메룬에 있으면서 했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거시적인 일이었다고 할 수 있죠. 이제는 조금 더 미시적인 부분들을 메워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지난해부터 카메룬에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양성이 시작됐는데, 그렇게 교육받은 현지 의사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길 바라시나요.

“카메룬 응급의료의 기초를 놓는 데 기여했던 외국인으로 기억된다면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카메룬에서 응급센터를 개원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느낀 것은 긴 호흡과 조화로운 호흡의 중요성입니다. 야운데 응급센터는 가난한 죽음을 막기 위한 일종의 인공호흡기죠. 인공호흡기를 떼기 위해서는 온전히 자발호흡을 할 수 있는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지속가능한 개발협력이란 결국 상대 국가가 자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전쟁의 폐허와 빈곤에서 벗어나 선진 의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유능한 의료인력을 육성한 대한민국이 가난한 나라를 위한 인공호흡기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김남주 기자

한국, CES 최고혁신상 35개 중 14개 차지 “자신감 가지되 자만해선 안 돼”

특강

주영섭 (기계공학74-78)
모교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디지털·그린·문명 대전환의 시대 사람을 향한 기술로 혁신 피해야

“CES 최고혁신상은 정말 받기 어려운 상인데 35개 부문 중 14개 부문을 우리나라 기업이 차지했습니다. 정말 잘한 거죠. 그러나 자신감은 가지되 자만은 금물이에요. 한국이 세계 기술 혁신을 주도한다? 이런 표현을 미디어에서 많이 쓰는데, 굉장히 호도하는 겁니다. 세계를 주도하는 테크기업, 애플·구글·아마존·테슬라 등은 참가조차 안 했어요. 국가 간 상대 비교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는 건 오판의 우려가 있습니다.”

관악경제인회가 2월 1일 더플라자호텔 4층에서 올해 첫 조찬포럼을 열었다. 이부섭(화학공학56-60) 회장, 이희범(전자공학67-71) 명예회장, 서병륜(농공69-73) 수석부회장, 조완규(생물48-52)·오세정(물리71-75) 전 모교 총장 등 동문 7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포럼에서 주영섭 모교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가 ‘CES 2024를 통해 본 미래 패러다임 전환과 대응 방향’을 주제로 연단에 섰다. 주영섭 동문은 모교 졸업 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에서 산업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대오도넷 사장,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미래성장동력 특별위원, 중소기업청장 등을 지냈다. 최근 10여 년간 열린 CES를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참가했다.

“일각에선 구글, 아마존이 참여했다고 오해하시는데 구글의 ‘헤이 구글’, 아마존의 ‘알렉사’ 같은 AI 어시스턴트를 이용해 다른 회사에서 만든 제품들을 모아 꾸린 부스예요. 이미 미국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니 전시회에 나갈 필요가 없는 거죠. 대신 직원들 짝 풀어서 경쟁사의 기술 동향을 살살이 살핍니다. 반면 미국 시장을 공략해야 하는 삼성·LG·현대차 등 우리 기업은 열심히 참가하는 거고요.”

주 동문은 또 “CES는 제품 전시회가 아닌 기술 전시회, 서로의 기술을 선보이며 향후 협력 전략을 논의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물건 팔러 가는 곳이 아닌 데 얼마짜리 계약을 따냈다, 판매 실적을 얼마만큼 올렸다, 얘기하는 건 우물에서 송농 찾는 격”이라 꼬집었다.

CES에 관한 여러 오해를 바로잡은 그는 작년 CES의 핵심 슬로건이 ‘인류 안보(Human Security For All)’였음을 상기시키면서 올해 CES의 핵심 슬로건 ‘All together, All on’을 ‘모두 함께 기술 혁신으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자’로 의역했다.

“안전, 보장은 곧 위협, 불안을 전제합니다. 작년 CES에서 제시한 7가지 안전



은 식량 보장(Food Security) △건강 관리(Access to Healthcare) △경제 안정(Economic Security) △환경 보호(Environmental Protection) △개인의 안전과 이동(Personal Safety & Mobility) △공동체의 안녕(Community Security) △정치적 자유(Political Freedom) 등이죠. 역으로 식량 증산이 인구 증가를 못 따라가 발생하는 굶주림과 제2의 코로나 같은 전염병에 대한 공포, 경기침체에 대한 불안, 기후위기 등을 배경에 깔고 있어요. 정치적 자유는 50여 년 전 유엔이 만든 걸 가져왔고 올해는 ‘기술에 대한 접근(Access to Technology)’을 추가했습니다. AI를

잘 알면 안전을, 모르면 불안을 느끼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이 8가지를 ‘Global Human Security’라고 정의한 주 동문은 “뒤에 이어지는 For All 또한 중요하다”며 인류가 존속하려면 포용성을 띠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8가지 안전 혹은 보장이 성별·인종·지위·계층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기업 활동 역시 “맹목적인 기술 혁신으로 협력 회사나 소비자에게 감동을 줄 수 없다”며 “그 기술 혁신으로 이러한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뭔가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조건 신기술이 주목받았던 CES에서 작년부터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똑같은 자율주행이었는데 BMW는 최첨단이었는데도 반응이 싸늘했고 농기계에 적용한 ‘존 디어(John Deere)’는 엄청난 찬사를 받았어요. 주가도 30% 뛰었고요. 보행자도 없고 다른 차도 없는 농지에서 자율주행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농업 기술 혁명으로 세계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포부가 마음을 울렸던 거죠. 이러한 관점과 사고의 변화가 실질적입니다. 혁신을 위한 혁신이 아닌, 인류 안보를 위한 기술 혁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화장품 회사 로레알은 이번 CES에서 ‘뷰티 포 이치(Beauty for Each)’를 표방했다. 자기 자신을 꾸며 아름다워지면 자신감, 행복감을 느끼게 된다는 데

착안해 이러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 손 없는 사람에게 립스틱을 발라주고 앞 못 보는 사람에게 매니큐어를 칠해주는, 생성형 AI 기반 ‘뷰티 지니어스’를 시연했다. 주 동문은 이러한 기술이 과연 장애인만을 위한 것이겠는가, 반문하면서 “모든 사람이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까닭에 감동을 주고, 이러한 포용성이 회사의 레벨을 끌어올린다”며 “로레알은 더 이상 화장품을 파는 회사가 아니다. 우리 기업도 빨리 기술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디지털 대전환’, 기후위기에 비로한 ‘그린 대전환’, 코로나 팬데믹·신냉전시대에 요구되는 ‘문명 대전환’까지 세계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 대응으로 디지털화, 지속 가능성과 함께 저는 ‘협력’이 중요하다고 봐요. 한국은 지금까지 패스트 팔로우 전략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협력보단 경쟁에 익숙하죠. 그러나 퍼스트무버가 되려면 혼자서는 안 돼요. 상상가상 상호 신뢰조차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관악경제인회 회원 여러분들이 후배 경영인들과 함께 협력의 모범 사례를 많이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관악경제인회는 이날 참석한 동문 모두에게 주 동문의 공저 ‘산업 디지털 전환: 대전환 시대의 성공 요건’을 증정했다. 나경태기자

“자동차 값 못지않은 전자의수 가격, 스마트폰 값으로 낮췄어요”

인터뷰

이상호 (대학원03-08)
만드로 대표

돈 많아야 누리는 기술 의미 없어 저렴하고 가벼워 CES 최고혁신상

이상호 만드로 대표가 만든 전자의수 ‘마크7D’가 최근 개최된 CES에서 노인 및 접근성 부문 최고혁신상을 받았다. 삼성·LG·소니·파나소닉 등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들을 포함, 153개국 4300여 개 기업이 참가한 전시회에서 35개 최고혁신상 중 하나를 차지한 것. 만드로의 전자의수는 기존 제품의 20분의 1 가격에 가볍고 충전도 탈착도 더 쉽다. 1월 24일 부천 춘의테크노파크에 있는 만드로 작업실에서 이상호 동문을 만났다.

“전자의수가 필요한, 손 또는 팔 절단 장애인 중에서도 소수에 속합니다. 국내에 약 14만 7000여명, 전세계에 약 1000만여 명으로 추산되죠. 불편을 겪는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많아 보이지만, 다른 장애인이나 비장애인 수와 비교하면 훨씬 적습니다. 전자의수 시장규모도 다른 IT 테크 시장에 비해 작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듯 소수를 대상으로 한 제품에 최고혁신상을 주셔서 저희가 하는 일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아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을 만큼 행복합니다.”

모든 면에서 기존 전자의수를 압도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싸게 팔까. 반값만 돼도 많이 사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 동문은 고개를 저었다. 국내에서 전자의수를 사용하는 절단장애인은 채 10명도 안 된다는 것. 세계로 눈을 돌려도 0.1%에 불과하다. 최저 4000만원이란 고가에 아무리 잘 관리하며 써도 내구 연한이 5년을 못 넘길뿐더러 드라마틱한 효용성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 그러니 절대다수는 구입을 포기한다. 너무 비싼 가격에 사실상 ‘그림의 떡’이 되는 셈.

“자동차 값 못지않은 전자의수를 스마트폰 값 정도로 낮추는 게 최우선이었습니다. 목표 자체를 극단적으로 높게 잡고, 애초부터 평범한 경제 수준의 사람들이 접근 가능한 가격에 맞춰 제품을 만들어 왔죠. 기술 개발을 통한 원가 절감에 주력했고요. 전자의수가 완전한 손으로 기능한다면 하나만 있어도 되겠지만, 손과 손가락의 움직임은 매우 다양하고 섬세해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기능이나 용도별로 의수를 선택해 장착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슬리퍼에서 방한화, 운동화, 구두까지 신발도 여러 종류를 갖추고 필요에 따라 골라 신는 것처럼 이 동문은 골프채 잡은 손 모양이나 기타 피크된 손 모양 등 의수도 개인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작, 공급한다고 말했다. 기존 전자의수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이 여러 가지 의수를 구비해 놓고 골라 쓸 수 있게 만드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다.



완전한 손엔 못 미친다고 했지만, 만드로의 전자의수 시연 영상은 신기하다 못해 유쾌하다. 의수에 펜을 끼우고 이름을 쓰거나 골프공·통조림통 등을 집어 나르며, 영화 ‘스타워즈’의 한 장면처럼 의수로 형광봉으로 된 긴 검을 쥐고 비장애인인과 대련하는 장면을 연출한다.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지고도 의수를 착용한 그들의 얼굴엔 천진난만한 웃음이 번진다. 그 천진한 미소에서 의수가 장애를 숨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나름의 멋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다. 만드로가 절단장애인에게 ‘테크니컬한 일종의 미용실’이 될 거라고 했던 이 동문의 포부가 떠올랐다.

“처음부터 전자의수에 관심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2013년 처음 접한 3D 프린팅 기술에 매료됐고, 이듬해 ‘(3D 프린팅으로) 무엇이든 만든다’는 뜻을 담아 회사를 설립했죠. 얼마 후 동갑내

기가장이 한순간의 사고로 절단장애인이 된 사연을 우연히 접했고, 2015년 재능기부 차원에서 처음 의수를 만들었어요. 3주 만에 첫 번째 버전을 완성하고 당사자의 피드백을 받았지만, 겨우 몇몇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뿐인 작업을 계속해야 하나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동안의 과정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하고 손을 때려보고 했죠.”

그러나 이 동문의 지인이 장문의 의수 제작 과정을 다른 SNS에 공유했고, 그게 다시 하루 만에 100만 명에게 공유될 정도로 이목을 끌었다. 의수 제작 관련해 이 동문이 쓴 다른 글이 연이어 화제가 되면서 수차례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음 포털의 클라우드 펀딩을 받게 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이어졌다. 많은 이들의 지지와 지원에 등이 떠밀려 발을 뺄 수 없게 됐다. 사비 들

여 재능 기부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책임감이 따랐다.

“값비싼 부품인 근전도센서(EMG)를 직접 개발했고, 3D 스캐너와 3D 프린터를 활용해 제작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업계 최초로 충전·착용·보관이 쉬운 거치식 충전 방식을 도입했고요. ‘돈이 없어 전자의수를 못 쓰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를 모토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다닐 때 비해 수입이 확 줄어 아내의 눈치바람을 먹긴 합니다만(웃음), 특별히 돈 드는 취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검소한 편이라 생활이 쫄리진 않습니다. 첫째가 올해 중3이 됐어요. 창업 시작할 때 태어난 둘째가 초등학교 4학년 올라가고요. 다재다능하게 크는 둘째처럼 만드로도 차곡차곡 성장해가기를 바랍니다.”

이 동문은 올해 CES 때 자사 부스에서 100미터 이상 벗어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개막 초기 사티아 나델라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만드로 부스를 찾으면서 연일 몰려드는 방문객을 상대느라 모교 부스마저 한번 둘러보지 못했다고. CES의 ‘Consumer Electronics’가 본래 냉장고·세탁기·에어컨·TV 같은 ‘가전’으로 번역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첨단 IT 테크로 받아들여지는 것에 대해 그는 “CES가 포지션을 아주 잘 잡았다”며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는 기계들이기에 기술의 진보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다. AI와의 접목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는 것 또한 당연하다”고 짚었다. 나경태기자

농생대, 사회대, 의대...풍경이 달라진다



사회과학대학은 노후한 관악캠퍼스 16동 건물의 리모델링과 한국경제혁신센터 신축 공사를 진행 중이다. 사진은 사회대 리모델링 조감도.

노후한 건물 리모델링 활발 연건 의학도서관도 재건축

최근 모교 캠퍼스 곳곳에서 건설 공사 현장이 눈에 띈다. 노후한 건물의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비롯해 새로운 공간 수요를 반영한 신축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수년 안에 캠퍼스 풍경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관악캠퍼스 농생대(201동) 제3학생 식당 인근엔 연면적 1만890㎡,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의 건물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구 복지관으로 불린 75동으로, 2021년부터 재건축 중이다. 올해 7월 경 완공되면 역사연구기록관과 본회 및 관악회의 사무공간, 농생대 강의실, 대학신문 편집국 등이 입주한다. 총 사업비 273억원 중 서정화 전 총동창회장이 마련한 한화의 기부금 50억원을 포함해 재단법인 관악회가 100억원을 지원했다. 정부 출연금(113억원), 농생대 출연금(60억원)도 소요됐다.

사회대(16동)에선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리모델링과 한국경제혁신센터 신축이 동시에 이뤄지고 있다. 1995년 지어진 16동은 1만6008㎡로 적지 않은 면적임에도 사회대 구성원이 활동하기엔 비좁았다. 건물 노후화에 따른 누수, 냉난방 등 안전 문제도 빈번했다. 16동은 기본 골조만 남기고 철거 후 외관과 내부 시설 전면 리모델링에 들어갔다. 사회대가 대대적인 모금 캠페인을 벌인 가운데, 본회 김종섭 회장이 기부한 리모델링 기금 50억원이 마중물이 됐다.

사회대 도서관 자리에는 한국경제혁신센터를 새로 지어 올린다. 국가 경제

현안과 정책 방향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연구 공간과 사회대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완공될 때까지 사회대생은 아시아연구소, IBK커뮤니케이션센터, 우석경제관 등지를 사용한다.

중앙도서관 관정관과 자연과학관(56동) 사이 경사지에서 지난해 말 첫삽을 뜬 김철수 물리관(56-1동)은 이효상(물리66-70)·배수옥(농화학71-75) 부부가 은사의 이름으로 '고 김철수 교수 기념관 설립 기금' 40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건립이 성사됐다. 고 김철수 교수는 문리대 시절부터 17년간 모교에 재직하며 물리학과를 위해 헌신했다. 2025년 완공 예정인 김철수 물리관은 4층 규모에 실험교육과 집단 연구 공간, 아이디어 팩토리, 네트워크 라운지 등 학생 공간을 넉넉히 갖추고, 김철수 교수를 기리는 기념관도 들어선다.

음악대학이 1976년부터 쓰던 예술관 2(54동)와 예술관3(55동)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시작한 리모델링을 올해 11월 마무리한다. 사업기금으로 신수정 본회 고문이 1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고 김수근 건축가가 설계한 한국 모더니즘 건축의 대표작으로 서울미래유산에도 지정된 건물인 만큼, 예술적인 가치와 사용자의 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공간 설계에 주력하고 있다.

'윗 공대' (301·302동)로 가는 길목엔 해동첨단공학관이 3년여 공사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2019년 고 김정식(전자공학48-56) 대덕전자 회장 겸 해동과학문화재단 이사장이 "미국 MIT의 'AI칼리지' 못지않은 AI 연구 시설을 만들어달라"며 500억원을 기부한 것이 시작이 됐다. 연면적 약 9994㎡, 지상

7층 규모로 비공대생도 아우르는 다양한 학문 분야 연구실, 전시실, 강당, 창업공간 등을 갖추게 된다.

연건캠퍼스에선 동문들의 정성에 힘입어 새로운 의학도서관을 쌓아올리고 있다. 의대 본부와 경모궁지 사이 부지에 들어설 새 의학도서관은 연면적 1만 5200㎡, 건축면적 2791㎡에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로 의학도서관과 종합실습동, 학생 교육시설을 포괄하는 공간이다. 1974년 건축된 의학도서관이 낡아서 총 공사비용 343억원 중 대학본부에서 83억원, 의대가 260억원을 부담하기로 하며 2014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건립기금 모금이 주춤했으나 동문 및 단체의 기부 행렬로 목표액을 거의 달성하며 기공이 실현됐다. 2월 초 현재 80% 정도 공사가 진행됐으며, 올해 5월 준공 후 가을에 정식 개관할 예정이다.

모교는 1984년 지어져 노후화가 심한 문화관(73동)을 재건축해 다양한 규모의 공연 공간을 조성하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는 문화관-행정관 앞 잔디광장-학생회관을 잇는 학습·교류·소통 공간 'SNU 커먼즈(Commons)' 조성 과도 연계된다. 이주용(사회53집) KCC정보통신 회장이 재건축 기금으로 100억원을 기부했지만 동문들의 성원이 더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기숙형 대학 'LnL' 확대를 위한 기숙사 7개 동 재건축도 추진된다. 그밖에 1990년 이전 준공된 모교 건축물 중 공대 대형강의동(43동), 약학관(21동), 반도체공동연구소(104동), 수원농장 본관동 및 유리온실 등이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단계에 들어섰다. 박수진기자



연건캠퍼스 의학도서관 재건축 공사 현장



사진=의학도서관 관악캠퍼스 75동을 재건축한 역사연구기록관 공사 현장

의류학과생 된 아이스하키 국대 이은지

현역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선수가 모교 의류학과에 합격해 화제다. 최근 조선일보는 분당대진고를 졸업하고 2024학년도 모교 수시모집에 합격한 이은지(사진) 씨의 소식을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초등학교 3학년에 아이스하키를 처음 시작해 중학생 때부터 줄곧 국가대표로 뛰었다. 공격수 포지션으로 U18 국가대표, 성인 국가대표로 선발돼 세계 선수권대회와 올림픽에 출전했다.

이씨는 1년 중 네 달간의 '시즌'엔 세계선수권을 준비하고, 나머지 기간엔 학업에 집중했다. 시즌 중에도 오전엔 학교에 가고, 대회 출전차 해외에 갈 때면 공항에서 수학 문제를 풀거나 유튜브를 보며 공부했다. 고3인 지난해엔 대입을 준비하며 훈련을 받았다. 2023 국제아이스하키연맹(IIHF) 여자 세계선수권 디비전 1 그룹B(3부 리그)에 출전해 첫 번째 경기에서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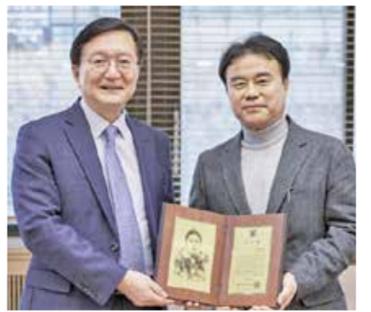
회 첫 골을 넣었고, 연이은 활약으로 한국 팀이 5전 전승을 거두고 세계선수권대회 디비전 1 그룹 A(2부 리그)로 승격하는 데 공을 세웠다.

스포츠 의류 소재에 관심을 갖고 의류학과를 택했다는 이씨는 모교 합격 후에도 링크장에서 연습을 계속하고 있다. "공부와 하키는 개념과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닮았다"며 앞으로도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신경수 동문 3000만원 기부

신경수(농공84-88) 서울기술사학원 원장이 1월 24일 모교에 '지역시스템공학전공 기금' 3000만원을 기부했다.

신 동문은 모교 졸업 후 농업토목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모교에서 객원 연구원으로 재임한 데 이어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교환 교수를 지냈다. 현재 건설 분야 기술사 관련 강의를 제공하는 서울기술사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부터 모교에 꾸준히 기부한 금액이 총 1억여 원이다. 신 동문이 기금을 기부한 농생대 지역시스템공학



신경수 동문(오른쪽)과 유홍림 모교 총장.

전공은 토양·토지 관리공학과 환경·에너지공학 등을 포함하고 있어 신 동문의 전문 분야와도 관련이 깊다.

정시 일반고 합격생 11년 만에 최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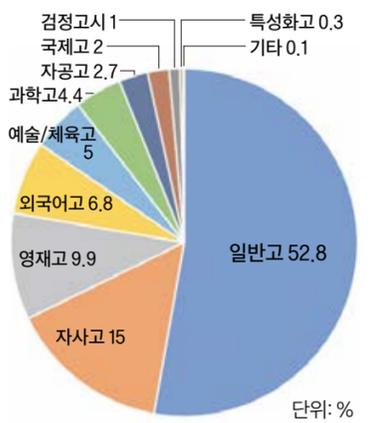
>>1면에 이어서

모교는 2024학년도 정시모집 전형으로 총 1545명을 선발했다. 합격자 중 일반고 출신 비율은 61.9%로 지난해(54.7%)에 비해 크게 상승했고, 자사고 출신 비율은 19.6%로 지난해(24.7%)보다 다소 하락했다.

지난해 2월 1일 모교가 발표한 정시모집 최초 선발 결과에 따르면 모교는 2024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지난해보다 120명 늘어난 1571명을 모집했다. 정원 순증을 통해 올해 신설된 첨단융합학부(정원 218명)의 정시모집 선발인원 70여 명이 포함된 숫자다. 총 6972명의 지원자 가운데 정원 내 일반 전형으로 1218명, 지역균형전형으로 156명, 정원 외 기회균형특별전형 농어촌으로 83명, 기회균형특별전형 저소득으로 84명을 선발했다. 기회균형전형 특수교육대상자 및 북한이탈주민 전형으로 4명이 합격했다.

정시 합격생의 출신 고교 유형은 일반고(61.9%)가 가장 많았고, 자사고(19.6%), 예술/체육고(6%), 외국어고(3.7%), 영재고(2.3%), 예술/체육고(4.4%), 자공고(1.9%), 과학고(1.4%), 국제고(0.6%), 특성화고(0.5%), 기타(0.1%) 순이었다. 검정고시 출신 합격생은 32명으로 2.1%였다. 일반고 합격

수시·정시 합격생 고교 유형별 현황



생 비율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의대 쏠림 현상으로 인해 모교 합격생 중 자사고 출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시 합격생 중 재학생 비율은 40.4%로 재학생 비율(38.1%)을 앞질렀다. 삼수 이상도 19.3%로 지난해(17.6%)보다 상승했다.

검정고시와 외국어고 고교를 제외한 출신 지역으로 살펴보면, 서울 출신 정시 합격생은 전체의 44.7%로 지난해(48.5%)보다 약간 감소했다. 광역시 출신 합격생은 14.5%, 시 출신 비율은 36.6%, 군 출신은 4.2%로 나타났다.

“글씨는 마음의 거울, 쓰다 보면 알게 되죠”

방학 때 특훈하며 연 2회 전시
올해 60주년, 11월 회갑전

먹빛은 천년을 간다고 했다. 1964년 첫 획을 그은 모교 서예회도 먹빛을 따라 변함없이 자리를 지켜왔다. 올해 60주년을 맞은 서예회가 특별한 한 해를 준비하고 있다.

1월 31일 찾은 학생회관 서예회 서실은 방학인데도 부원들로 가득했다. 넓은 책상엔 연식을 알 수 없는 벼루들이 놓였고, 화선지를 펼치고 앉은 이들의 등 뒤로 붓글씨가 가득 드리워졌다. 20여 부원들은 학기 중 주 2회 서실에서 정기 연습을 하고, 방학 때도 서실에 나와 열심히 글씨를 공부하고 연습한다. 인터뷰에 응한 이상연(고고미술사학23입) 회장과 조상연(경제18입) 전 회장은 “서예가 어렵다는 생각을 버리고 즐거움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했다.

어린이 서예 학원도 줄어드는 요즘, 대부분의 신입 부원이 서예를 모르는 채 들어온다. 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한 자라도 더 써본 선배들의 몫. 이상연 회장은 어릴 때부터 정석으로 서예를 배웠지만, 서예회에선 더 쉽고 재밌게 가르치려 노력한다고 했다. “정석대로라면 선 굵기만 2~3주 해야 하지만, 잘한다면 2~3일에 끝나고 바로 한문 부수나 ‘가나다라마바사’ 같은 글자 기초 연습을 시키기도 해요. 그리고 전시회 출품을 목표로 작품 연습에 들어갑니다.”

매 학기 여는 서예전은 서예회 활동의 백미이자 초보들의 실력을 단숨에



서실에서 글씨 쓰기를 연습 중인 서예회 부원들. 방학 중에도 나와서 서예를 공부한다.

끌어올릴 기회. 20글자 남짓 들어가는 반(半)전지에 서툴어도 하나의 작품을 쓸 수 있게 독려한다. 조상연 전 회장은 “작품을 쓰려면 한 글자 한 글자를 잘 쓰기보다 처음부터 끝까지 연속적인 호흡으로 하나의 글을 써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연습하는 것”이라고 했다. 물기 먹어 구깃구깃했던 화선지가 배접을 거쳐 매끈해지지만 해도 그럴듯한 작품처럼 보여 어느새 자신감이 불고, 본인 눈엔 부족한 부분이 속들어오니 의욕도 생긴다.

옛 선배들은 구양순, 왕희지 등 비석문의 정석 글씨를 모은 ‘법첩’의 글씨를 따라 쓰는 입서에 주력하고, 국내 자료가 부족해 일본의 서예 책을 구해 공부했다. 지금은 자료도 풍부하고 글씨 내용이 다양해졌다. 처음에 한문 전서·예서·해서·행서·초서,

한글 궁체, 판본체 등 다양한 서체를 써보면서 필력을 기르고 글자를 조형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같다. 그 다음 마음에 드는 글자와 서체를 정해 작품을 연습하는데, 한문 고전부터 가요의 노랫말, 자작시, 심지어는 외국어도 등장한다.

서예 문화에 차츰 몰두해 개인 낙관과 호(號)를 만든 부원도 여럿이다. 서법을 익히며 마음의 수양도 이뤄진다. “선배들이 왜 처음에 ‘글씨는 마음의 거울’이란 말을 꼭 쓰게 할까 의아했어요. 쓸 땐 제 마음이 흔들리는 걸 모르는데, 다 쓰고 나면 보이더라고요. 예쁘게 정돈된 글씨를 쓰고 싶어 고민하다 보면 차분하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인재(仁齋)’ 조상연 전 회장의 말이다. ‘석헌(石軒)’ 이상연 회장은 “붓 잡는 자세가 ‘편봉’으

로 기울지 않고 항상 붓대를 수직으로 유지하는 ‘중봉’이 중요하다. 멧을 부러려 한자 획끝을 과하게 빠지는 것도 자제시킨다. 자유분방도 기초를 쌓은 후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서법만큼은 제대로 가르친다”고 했다.

연초부터 서예회는 분주하다. 이상연 회장은 “5월 신입부원 위주 전시에 이어 11월 회갑전을 계획하고 있다. 졸업하신 선배님들과 모교 교수님들, 그간 교류해온 외부 서예 동호회의 찬조작품까지 풍성한 전시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전시 마지막날은 홈커밍 데이로 선배들과 만나는 것이 관례. 평소에도 네이버 밴드에서 200여 명의 선배들과 소통하고, 지도교수(남동신 국사학과 교수) 또한 서예회 출신이다. 오래도록 붓을 놓지 않는 선배들은 서예가 평생가는 취미임을 보여주는 산 증인이다.

“사회에 나가면 전시 기회조차 얻기 어려운데 동아리에서 꾸준히 전시를 열고 작품을 걸 수 있으니 너무 감사하죠. 전시를 앞두고 서실에 모여 같이 밤새워 글씨를 쓰는 것도 좋은 추억이구요. 지금까지 95번의 전시를 했으니, 선배님들도 똑같은 추억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조상연)

“선배님들께 50주년보다도 한 갑자가 들었다는 60주년의 의미가 크신 것 같아요. 11월 전시에 대비해 지금부터 실력을 기르라고 말씀하시죠. 기대가 크시지만 부담되진 않아요. 덕분에 저희가 더 성장하고 적극적으로 임하게 됐으니까요. 11월 회갑전은 서울대 서예인의 잔치 같은 자리가 될 테니 많이 와주세요.”(이상연) **박수진 기자**

모교 단신

장애 학생 전액 장학금 지급

모교는 올해 1학기부터 ‘동행 장학금’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장애등급 기준으로 1~3급에 해당하는 학부 재학생에게 성적 등의 기준 없이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모교는 기존에 저소득층 유학생과 UN참전용사 손자녀 유학생, 국가유공자 손자녀, 북한이탈주민 등에 등록금 전액을 면제해왔다. 동행 장학금을 받는 학생은 본회에서도 관악회 결연장학생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 신설

통계청은 최근 모교 신양학술정보관에 통계데이터센터를 구축했다. 통계 데이터에 기반한 연구활동의 편의를 위해 모교가 요청한 것으로, 기존에 12곳에 설치된 통계청 통계데이터센터가 대학 캠퍼스에 들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모교는 센터에서 기존 조사통계 위주의 마이크로데이터뿐만 아니라 행정 통계자료와 민간 데이터를 제공받아 각종 학술연구와 산학협력·국가정책 연구 수행할 예정이다.

분당 병원, 모바일로 입원 과정 간소화

분당 모교 병원(병원장 송정환)이 최근 국내 삼급병원 최초로 입원 전 과정을 모바일 서비스로 제공하는 ‘알림톡 기반 모바일 입원예약 및 입원수속 시스템’을 구축해 시행하고 있다. 입원 단계별로 창구에 방문하거나, 입원 연기·취소시 콜센터 전화연결을 해야 하는 등 번거로웠던 입원 과정을 간소화하겠다는 취지다. 분당 모교 병원에 입원이 결정된 환자는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을 통해 입원 예약과 병실 배정, 입원수속, 입원진료비수납까지 진행할 수 있다.

기술지주, 작년 스타트업에 110억원 투자

모교 기술지주회사(대표 목승환)는 최근 2023년 성과 자료를 공개하고 지난해 신규 25건, 후속 10건을 포함해 총 35개 스타트업에 110억원의 투자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해외투자로는 9건에 총 30억원을 투자했으며, 투자 포트폴리오는 180개를 돌파했다. 또 일본에서 첫 글로벌 IR을 개최하며 유망 초기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모교 중심의 관악구 창업 밸리 ‘관악S밸리’ 기업지원펀드로 59억원 규모의 ‘서울대 STH 관악S밸리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기도 했다.

서울대 직소퍼즐·스티커북 출시

모교 출판문화원이 최근 모교 관악캠퍼스 풍경을 담은 직소퍼즐과 스티커북을 출시했다. 직소퍼즐은 ‘샤’ 모양으로 유명한 모교 정문의 낮 전경(500조각)과 밤 전경(1014조각) 두 종류로 출시됐으며 완성시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스티커북은 자하연, 중앙도서관, 정문 등 모교의 랜드마크 11곳의 사계절을 담았다. 온라인 서점 및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다.

모발 성장 촉진 효소 연구 화제

권오상(의학90-94) 모교 병원 피부과 교수 연구팀이 머리카락을 생성하는 모낭세포에서 ‘알데하이드 탈수소효소(ALDH2)’라는 효소를 활성화해 세포 내 에너지 대사를 촉진하고 모발 성장주기를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ALDH2는 체내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 있는 효소로, 연구 결과 머리카락을 생성하는 모낭 상피세포층에서 활성도가 가장 높았고 머리카락이 성장을 멈추는 휴지기엔 활성이 미미하게 발현됐다. 반면 모발 성장기로 전환되면 발현이 급증해 모발 성장기 단계로 유도하는 새로운 치료 전략의 단서를 제시했다.

시카고대·도쿄대와 양자 공동연구



모교는 최근 IBM 및 연세대, 시카고대, 도쿄대, 게이오대 등과 양자분야 공동교육을 위한 상호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왼쪽부터 후지이 테루오 도쿄대 총장, 유홍림 모교 총장, 폴 알리비사 토스 시카고대 총장, 예수스 만타스 IBM 컨설팅 글로벌 매니징 파트너. 사진=모교 홍보팀

모교가 첨단산업의 핵심 분야인 양자 분야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해 12월 모교 내에 서울대학교 양자연구단(단장 김태현)을 신설하고, IBM 및 연세대, 시카고대, 도쿄대, 게이오대 등 한·미·일 4개 대학과 양자 분야 공동교육을 위한 상호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이어 1월 18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시카고대, 도쿄대와 양자과학 및 공학 분야에서 학술교류와 공동연구 등을 위한 상호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양자 분야에서 학내 연구 능력을 결집하고, 양자 분야를 선도하는 해외 대학들과도 적극적인 협력이 나섰다.

양자컴퓨팅, 양자 센싱, 양자통신 등 양자과학기술은 기존 컴퓨터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혁신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주목받는 기술이다. 세계 여러 나라가 주요 전략기술로 간주하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 정부도 경제, 국방, 안보 등 분야에 막대한 파급력을 예상하고 국가전략기술로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 상호협력의향서 체결로 양자 연구 발전과 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적인 공동 노력이 시작되면서 한·미·일 안보실이 “3국 대학 간 퀀텀 분야의 협력을 촉진하고 지지한다”는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모교 양자연구단은 학내 양자 연구자들을 결집해 공동연구를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양자과학기술 주도권 확보에 기여하고 해외 양자 기술 선도국과 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공동 연구 협력 체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모교 입시 면접 때 창의 역량 평가한다

모교가 2028년 대입 전형에서 수시 모집과 정시모집의 역량중심 평가체제를 강화하고, 면접에서 창의·융합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1월 29일 입학본부(본부장 천명선)가 관악캠퍼스에서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개최한 대입정책포럼을 통해 공개한 내용이다.

이번 포럼은 급변하는 대학교육 및 대입의 환경 속에서, ‘창의적 인재 선발이 대학의 교육 목표 구현 및 고교 수업과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학내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됐다. 학령인구와 지원/합격자 특성으로 본 변화의 필요성, 2028학년도 대입전형 개편 방안, 미래역량기반 창의적 인재선발을 위한 심층 역량평가 면접 설계안 등으로 구성됐다.

모교는 이날 2028학년도 서울대학교 대입전형 개편 방안 발표에서 수·정시모집 전형 설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고교 교육과정의 핵심역량 함양을 목표로 변화함에 따라, 대입 역시 대학 수학에 필요한 실질적 역량을 검증하는 역량중심 평가체제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방향이다.

이를 위해 수시 지역균형 전형에 남아있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하고, 정시에서도 같은 수능성적 등급의 성취도는 동일하게 인정한다. 40%로 정해져 있는 정시 선발 비율도 교육당국과 협의해 축소하는 등 수시와 정시에서 수능 비중을 줄이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심층 역량평가 면접 설계안 발표에서는 출제자나 면접관의 의도를 추측해 답변할 수 있었던 기존 면접 방식에서 탈피하고, 학생 주도적 답변이 가능하도록 열린 문항의 면접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교의 교육방식을 학생에게 이해시키는 공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학생 맞춤형의 심층 역량평가 면접을 도입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면접 유형으로는 △창의적 문제해결 면접 △융합적 과제수행 면접 △분석적 주제토론 면접 등을 제시했다.

모교 입학본부 대입정책팀은 교육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미래대입전형 설계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향후 창의·융합 역량평가 면접 설계를 위한 면접 사례 개발 및 면접관 교육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결과를 학내외에 공유할 예정이다.

상대동창회

박영안·이유재 동문 상대를 빛냈다

조문순 회장 유임

상대대학동창회(회장 조문순)가 1월 25일 소공동 롯데호텔 3층 사파이어 볼룸에서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회를 열었다.

성기학(무역66-70)·이중기(경영69-73) 전 회장을 비롯해 본회 김종섭(사회사업66-70) 회장, 송우엽(체육교육 79-83) 사무총장, 김동규(경영80-84) 사무차장과 모교 유홍립(정치80-84) 총장, 채준(경제86-93) 경영대학장, 김기현(철학78-83) 발전재단 부이사장 등 동문 25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박영안(경영72-76) 상대동창회 명예회장과 이유재(경영77-82) 모교 석좌교수가 빛내자상을 받았다.

박영안 동문은 해운 중계 및 외항화물운송업체인 태영상선을 성공적으로 경영해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은 물론 다양한 기부를 실천했으며 특히 2020년부터 2년간 상대동창회 회장을 맡아 동창회 발전에 헌신했다.

이유재 동문은 모교 경영대 교수로 30년간 재직하면서 뛰어난 학문적 업적과 활발한 연구 및 저술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 경영학 발전에 기여했다.



1월 25일 상대동창회 정기총회 겸 신년하례회에서 복을 기원하며 시루떡을 잘랐다. 왼쪽부터 장현국·박영안·정운찬·박재운·안태호·김종섭·이중기·채준·김기현 동문.

2020년부터 2021년까지 경영대학장 재직 동안 교육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이날 70학번 동문들이 21명 참석해 최다참가상인 문치자상을, 93학번 동문들이 지난해 연회비 63명, 평생회비 2명 등 가장 적극적으로 회비를 납부해 돕자상을 받았다.

김종섭 본회 회장은 축사에서 집안의 형님 두 분이 상대 출신이라며 친근함을 드러낸 뒤 “상대는 경영대학과 경제학부로 쪼개졌지만, 동창회가 상대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니 대단하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총동창회 운영 방향을 복 받을 일 만드는 데 됐다”며 “동창회 행사에 적극 참여하면 동문들

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유홍립 모교 총장은 “여기 계신 상대 동문들이 국가 발전의 주역이었고, 지금도 공대를 다니면서 경제, 경영을 복수 전공할 만큼 국가 발전에 핵심 지식으로서 경제학, 경영학의 역할은 크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모교 발전에 기여해주신 상대 선배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상대동창회는 작년 말 회장단 회의에서 차기 회장을 선임하지 못함에 따라 조문순(경제73-77) 현 회장의 임기를 올해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했다. 나경태 기자

법대동창회

원로동문부터 로스쿨 후배까지 300여 명 참석

신년인사회 개최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동창회(회장 우창록)가 1월 31일 더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2024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우창록(법학70-74) 회장, 전종익(공법90-95) 법학전문대학원 교무부원장 등 동문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본회 김종섭 회장이 함께했다.

우창록 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모임에 법학전문대학원 후배 13명과 50회 이후 후배 13명까지 법대 전 기수가 참석한 것 같다”며 “동창회장을 하면서 전 기수 참석 모임의 꿈이 있었는데 오늘 그 꿈을 이룬 것 같아 기분 좋다”고 말했다.

김종섭 회장은 축사에서 “서울법대는 모교 법전원으로 계승돼 대한민국



1월 31일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신년회에서 우창록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최고 엘리트라는 전통을 면면히 이어 오고 있다”고 하면서 “새해에도 단합된 법대 동문들의 힘으로 모교와 나라의 발전을 견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날 지난해 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취임한 최상목(사법82-86) 동문에게 축하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최 동문은 “윤증현 선배님 이후 15년 만에 법대인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됐다”며 “재정부에 법대 출신으로는 10년 만에 들어온 후배라서 선배들의 귀여움과 관심을 많이 받았고 그 덕에 차관을 거쳐 장관 자리에도 오를 수 있었던 같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날 행사의 여흥 시간에 하광룡(법학76-80) 동문이 향수 등 대중가요를, 성악가 원유슬(성악13-20) 동문이 클래식 곡을 들려줘 동문들의 박수를 받았다.

치대동창회

신입회원 환영회에서 졸업 10·20주년 선배들 노하우 전수

치과대학·치의학대학원동창회(회장 정상철)가 1월 1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DCOSNU 2024’를 개최했다. DCO는 Dental Community Orientation의 약어로, 졸업을 앞둔 후배들에게 선배들의 소중한 경험을 전하는 동시에 존경받는 치과의사가 되어줄 것을 당부하는, 신입회원 환영 행사로 2012년 처음 시작했다.

이날 행사엔 오는 2월 졸업하는 4학년 재학생을 비롯해 정상철(82-88) 회장, 권호범(89-93) 치의학대학원장, 이용무(87-91) 모교 치과병원장 등



치대동창회 DCOSNU 2024에서 참석 동문과 졸업을 앞둔 4학년생들이 기념사진을 찍었다.

20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규모로 치러졌다. 졸업 20주년, 10주년을 맞은 선배들이 멘토단으로 참여해 멘티들의 10년, 20년 후에 대해 이야기 나눴으며 사회를 맡은 황재웅(87-91)·이상민

(91-95) 동문이 흥미진진한 토크쇼 분위기를 자아내 참석 동문 간의 친근감, 연대감을 드높였다. DCO준비위원회 4시간여에 걸쳐 흥겹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농생대동창회

74학번 주관한 신년회에 200여 동문 친목



1월 10일 열린 농생대동창회 새해인사회 기념사진. 동문 200여 명이 참석해 친목을 다졌다.

농업생명과학대학동창회(회장 서병륜)가 1월 10일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새해인사회를 열었다. 서병륜(농공69-73) 회장, 장관식(식품공학80-84) 학장을 비롯해 동문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올해 입학 50주년을 맞은 74학번 동문이 주관 기수를 맡았다.

서 회장은 신년사에서 “오늘 새해인사회 주관을 맡아 수고를 아끼지 않는 동시에 70여 명으로 역대 주관 기수 중 가장 많은 동문이 참석한 74학번 동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축적한 우리 농생대 동문들이 뭉치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며 2019년 서 회장이 동창회장에 취임 직후 출범시킨 아그로푸드플랫폼(AFP)에 참여를 호소했다. AFP는 농식품 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동문 간 협력의 장으로, 세대를 뛰어넘은 지혜와 지식의 공유를 통해 최고의 농식품 광장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장 학장은 축사에서 “푸른 용, 청룡의 해 힘찬 첫걸음을 기원한다. 작년에 뛰었다면 올해는 날아다니는 한 해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 “뜻깊은 행사를 마련해준 74학번 동문들과 서병륜 회장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관악캠퍼스 이전 20주년을 맞아 R&D 자금 600억원을 달성했다”며 “선배 학장들의 노고와 동문들의 성원 덕분에”라고 말했다.

동문들은 새해를 맞아 덕담을 주고받았으며, 74학번 동문들은 뜻을 모아 상록문화재단에 장학금을 전달했고, 행사 지원 나온 재학생들은 선배들에게 90도 인사로 세배를 대신했다.

상록합창단의 축하 공연이 이어져 ‘희망의 속삭임’, ‘묵려화’를 들려줬으며 ‘과수원길’, 서울농대 교가 ‘상록의 아들딸’을 청중과 함께 불렀다. 참석 동문 모두에게 박용순(축산82-87) 카길에그리프리카 대표가 협찬한 계란 30구 1박스가 증정됐다.

수의대동창회

요즘 수의대 여학생 더 많아...여 동문 참여 유도



1월 12일 열린 수의대동창회 신년하례회에서 동문 60여 명이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었다.

수의과대학동창회(회장 백영옥)가 1월 12일 양재동 엘타워 엘하우스홀에서 신년하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백영옥(81-88) 회장과 김건호(70-74) 수의대 장학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동문 60여 명이 참석했다. 1960년대 학년부터 2000년대 학년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동문이 참석했으며, 여성 동문도 많아 눈에 띄었다.

백영옥 회장은 “젊은 동문과 여성 동문이 동창회에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건호 이사장도 “최근 수의대는 여학생이 더 많다. 여성 동문들이 더 많이 참석하는 동창회, 가족과 함께 참여하는 동창회가 되길 바란다”며 동창회 활성화를 위한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했다.

한편 권혁준 총무이사의 모교 현황 소개에 따르면, 현재 수의대에는 총 440명(학부 309명, 대학원 189명)의 학생이 등록되어 있으며, 2022년 기준 동물병원의 진료 매출은 73억 7450만 원이었다.

기계동문회

백승하 신입 회장 취임



기계동문회(회장 남민우)가 1월 12일 엘타워 그레이스홀에서 신년교례회를 열었다. 남민우(기계공학80-84) 회장, 이장무(기계공학63-67 전 모교 총장)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등 53학번부터 22학번 재학생까지 225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백승하(기계공학81-85·사진) 서울스탠다드 대표이사가 신입 동창회장에 취임했다.

백승하 회장은 모교 졸업 후 LG정밀(현 LIG넥스원)에서 6년간 근무했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1991년 서울스탠다드를 창업, 방위산업용 컴퓨터와 항공기용 제어장치를 30여 년 넘게 개발하고 있다. 2002년 수출 1000만 달러를 달성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을 받았다.

취임사에서 백 회장은 “올 한해 기계동문회 운영 목표를 동문들 간 교류 활성화와 젊은 동문의 신규참여 활성화로 잡고 동문회 운영의 실용성과 활기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ROTC동문회

모교 학군단, 2회 연속 최우수학군단에 선정



문무대 앞에서 모교 학군단 64기 후보생 14명이 최우수학군단 선정 기념촬영을 했다

김택천 신임 동문회장 취임

모교 ROTC동문회(회장 백승열)는 1월 24일 서울 도곡동 군인공제회관에서 2024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택천(체육교육80-84·22기·사진) 동문을 제29대 ROTC 동문회장에 선출했다.



김 신임 회장은 대한민국 ROTC 22기 총동기회 초대회장을 지냈으며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장, 함께하는 스포츠포럼 이사장 등을 맡고 있다. 김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서울대 ROTC 동문회가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친목을 굳건히 하며 상부상조의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 최고 리더 집단으로서 서울대 여러 동문단체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임하는 백승열 회장에게

ROTC중앙회 회장이 공로패를, 동문회에서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날 4기 김동진(체육교육62-66·모교 명예교수) 자문위원부터 59기 동문까지 총 60여 명이 참석했다. 백승열(농생물79-83·21기) 회장, 이준식(기계공학72-76·14기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자문위원, 본회 김종섭(사회사업66-70·87기) 회장과 송우엽(체육교육79-83·21기) 사무총장을 비롯해 노행식 23대 ROTC중앙회장, 김재승(23기) ROTC특전동지회장, 모교 101학군단장 고동운 대령도 함께 했다.

한편 지난해 하계 및 동계입영 훈련에서 103개 대학 중 모교 학군단이 창설 이래 처음으로 2회 연속 최우수 학군단에 선정됐다. 2월 26일 열리는 모교 전기 학위수여식에서는 여성 ROTC 후보생인 차윤지(작곡20입) 씨가 졸업생 대표 연설에 나선다.

충남대전세종지부

고향 후배에 장학금 주고 단대별 부회장 뽑고



1월 17일 충남대전세종지부 신년교례회에 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충남대전세종지부(회장 김창수)는 1월 15일 대전 서구 마리드웰 웨딩홀에서 정기총회 및 신년회를 열었다.

이날 김창수(정치73-77) 회장과 오응준(약학58-62) 명예회장, 이봉호(치의학86-90) 간사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장철민(정치02-06) 대전 동구 국회의원, 황운하 대전 중구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영진(공법81-85) 대전 세종연구원장, 본회 송우엽(체육교육

79-83) 사무총장도 참석했다. 동창회는 이날 서울대에 입학하는 지역 출신 학생 3명에게 총 3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약 70여 명의 장학생을 지원하고 있다. 김강조(약학64-68) 동문은 2001년부터 매일 약국 첫 손님에게 받은 돈을 모아 장학금에 보태왔다. 이날 김창수 회장은 단대별 신임 부회장 10명을 임명했다.

간호대동창회



1월 10일 연건캠퍼스에서 열린 간호대동창회 신년인사회에 참석 동문들이 단체사진을 찍었다.

신년인사회 60여 명 참석

간호대학동창회(회장 허영)가 1월 10일 연건캠퍼스 간호대강당에서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황보영(92-96 모교 간호학과 교수)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삼성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5개 병원의 본부장과 부원장, 팀

장들이 참석해 더욱 활기를 띠었다. 허영(70-74) 회장은 간호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문들의 모습에 따뜻한 응원의 말씀을 전했고, 박연환(87-91) 모교 간호대 학장은 동문들의 학교 사랑에 힘입어 서울대 간호대학이 더욱 발전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동문 60여 명은 서로의 근황을 묻고 답하며 친목과 화합을 다졌다.

대구경북지부

이정진 동문, 청년관악회 회장 맡아

대구경북지부동창회(회장 이종훈)는 2월 1일 대구 수성구 라온제나호텔 르미에르홀에서 신년교례회를 열었다. 68학번 최경진(의학68-74) 신피부과원장부터 04학번 곽현지(의류04-11) 동문까지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종훈 회장은 “박성진(사법84-89) 꿈그린 대표) 동문을 수석부회장에 임명했다”고 알렸다. 음악가 동문들의 섭외를 도운 최경진 전 회장을 비롯해 관악회(골프회) 최우식(수의학86-94) 회장, 행사에 거액을 후원한 동문 등 동창회 일을 도와준 동문들에게도 감사패를 전했다. 동창회는 또 1975년 대구 고교 평준화 이후 세대를 주축으로 결성한 청년관악회(청관회) 회원들이 60대에 접어들며 세대 교체가 필요해짐에 따라, 이정진(전기공학95-00) 법무법인 세영 변호사 전 사무총장이 새로운 청년관악회를 맡는다고 알렸다.

이어 동문 음악회에서 소프라노 유소영(성악84-88)·테너 이병삼(성악89-97) 동문이 지휘자 백운학(전기공



2월 1일 대구경북지부 신년교례회에 40여 명의 동문이 참석했다.

학94-98) 동문의 연주와 함께 성악 공연을 펼쳤다. 동문들이 건넨 잔을 높이 들어올리며 ‘축배의 노래’를 부르자 분위기가 달아올랐다. 좌중은 ‘브라비’와 ‘브라보’를 외치며 열렬하게 화답했다.

자유 발언 시간에는 모든 동문이 근황과 최근 관심사 등을 스스럼없이 털어놓으며 한층 가까워졌다. 동문 지인의 권유를 받아 처음 동창회에 나온 김창록(법학80-84)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유미(약학81-85) 경북대 약대 교수 부부, 서보성(전기공학01-10)

동문 등이 환영을 받았다. 김혜현(법학96-01) 법무법인 율리 변호사) 동문은 “이 모임에 처음 나온 지 10년쯤 됐는데 선배님들이 정말 많이 챙겨주신다. 그 따뜻함이 좋아 절친한 후배에게도 꼭 같이 나오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김재욱(국제경제82-86) 칠곡군수는 “최근 돌아가신 어머님이 물려주신 논에서 나온 쌀”이라며 갖도 정한 쌀 2kg씩을 동문들에게 선물했다. 동창회에서도 고급 비누, 장우산, 수건 등 기념품을 증정했다. 박수진 기자

AMP동창회

조옥환·신용문·박종욱 동문 AMP대상

최고경영자과정(AMP)동창회(회장 윤철주)가 1월 18일 소공동 롯데호텔 3층에서 신년교례회 및 제23회 AMP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윤철주(64기) 회장, 손경식(법학57-61·23기) 명예회장을 비롯해 동문 200여 명과 김상훈(경영84-88) 학장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조옥환(46기) 삼우 ENI 대표이사 회장, 신용문(68기) 원일특강 및 신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부회장, 박종욱(78기) 서원재단법인 이사장 등 3명이 대상을 수상했다.

조옥환 동문은 1988년 삼우ENI를 인수해 건축외장재 부문 최초로 해외시

장을 개척하고 불에 강한 외장패널을 개발하는 등 탁월한 성과를 이룩했다. 2010년부터 한국내화건축자재협회 회장을 맡아 업계 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서울대 AMP로타리클럽 회원으로서 봉사에 앞장서왔다.

신용문 동문은 1982년 한국중공업 평사원에서 1998년 원일특강 대표에 올랐다. 신라엔지니어링 대표를 겸임하면서 일본에 의존하던 특수강 및 자동차 외장패널의 국산화에 성공, 자동차산업은 물론 전자와 건설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68기 회장으로 헌신했다.

박종욱 동문은 1998년 국산 콤포레사



왼쪽부터 신용문 원일특강 대표이사 부회장·조옥환 삼우ENI 회장·박종욱 서원재단법인 이사장.

개발에 성공해 서원콤포레사를 강소기업으로 만든 뒤 2013년 사재 64억원을 출연해 서원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소외층 청소년과 노인, 장애인 지원에 앞장섰다.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아너사이어터 회원이다. 나경태 기자

ABKI동창회

이덕원 회장 연임, 김두레 동문 감사패

문헌지식정보최고위과정(ABKI)동창회(회장 이덕원)가 작년 12월 13일 호암교수회관 무궁화홀에서 정기총회 겸 송년회를 열었다.

이덕원(5기) 회장을 비롯한 동문 140여 명과 장덕진 모교 중앙도서관장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김두레(7기) 동문이 특별감사패를 받았다. 김 동문은 모교 중앙도서관에 자신의 작품 6점을

기증함으로써 도서관의 가치와 동창회의 위상을 더욱 높였다.

이 회장은 “올해 골프대회엔 30팀 이상이 참가했고, 몽골로 떠난 해외 역사 문화탐방엔 차량을 3대로 나눠 타야 할 만큼 많은 동문들이 참석했다”면서 “지난 1년간 동창회의 소통과 화합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동문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덕분에 2023년을 즐겁게



김두레 동문의 작품 기증 기념 사진. 왼쪽부터 이덕원 회장, 김동문, 장덕진 중앙도서관장.

보냈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를 통해 이 회장의 연임이 결정됐다.

임학동문회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

임학동문회(회장 조재구)가 1월 19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54학번 원로 선배부터 22학번 젊은 후배까지 40여 동문이 참석했다.

조재구(임학83-90) 회장은 인사말에서 “추운 겨울에도 많은 선배들과 후배들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하다”며, “선배들처럼 저도 최소 30번은 동창회 행사에 꾸준히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1월 19일 열린 임학동문회 신년교례회 및 정기총회에 40여 동문이 참석해 친목을 다졌다.

이후 최형순(산림자원91-98) 신임 총무 이사와 박일권(곤충91-95) 모교 산림과 학부 교수, 여지윤(산림환경20입) 신임 간사가 동문들에게 인사드렸다.

이날 행사에서 임학동문회 내 등산 모임 ‘서림시니어산우회’ 김만식(임학62-66) 회장과 골프모임 ‘서림골프’ 고성호(임학83-89) 회장, 지난 6년간 총무 이사로 봉사한 김경훈(산림자원86-90) 동문이 공로패를 받았다.

이후 동문들은 만찬을 함께 하면서 그간의 안부를 묻고, 학창시절 추억을 나누며, 친목을 다졌다. 이날 참석한 동문 모두에게 조 회장이 준비한 막걸리 및 마늘 와인과 한아름(대학원06-08) 간사가 준비한 떡을 선물했다.

“골프·사진·등산·당구·재테크 모임… 맛집 탐방 모임도 만들 겁니다”

보건대학원동창회장

김판기 (수의학81-85 보대원85-87)
용인대 보건복지과학대학장

특별과정 출신포함 회원 8000명
80년대부터 동창회 간사로 봉사해

올해 1월 김판기 용인대 보건복지과학대학장이 제18대 보건대학원동창회장으로서 임기를 시작했다. 동창회 조직이 태동하던 1980년대부터 재학생 신분으로 연락책임자 간사로 활동한 그는 2004년 총무이사를 거쳐 2008년 부회장, 최근 4년 동안엔 수석부회장을 지낸 동창회 역사의 산증인이다. 1월 26일 용인대 학장실에서 김판기 회장을 만났다.

“동창회에 대한 관심이 저조한 세대 속에서 학령인구마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젊은 회원의 유입과 참여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지요. ‘젊은 동창회, 선후배가 소통하는 동창회’를 모토로 한층 더 젊어진 회장단을 꾸렸습니다. 재미있는 동창회, 즐거운 동창회가 되도록 다양한 소모임과 알찬 행사를 준비했어요.”

경기 좋은 필드뿐 아니라 스크린 골프장을 활용해 수시로 모이는 골프회(회장 정효지), 카메라에 대한 이해부터 작품사진까지 폭넓게 배우고 촬영하는 사진회(회장 정진택), 국내 명산과 멋진



둘레길을 찾아 함께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만끽하는 등산회(회장 고영림), 중장년층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으로 각광받는 당구회(회장 신성철), 동문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불림회(회장 문승권), 재테크를 주제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는 경제포럼(회장 김종우) 등 다양한 소모임이 결성됐다.

“그밖에 독서클럽, 맛집 탐방, 명승지 답사회 등을 구상 중입니다.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죠. 권혁한(보대원75-77) 전임 회장님의 뜻

을 이어받아 작년에 처음 개최된 ‘종합 학술포럼’도 계속될 거고요. 매년 5월 개최하는 한마음 축제와 더불어 석사동창회와 박사회, 3개 특별과정(보건사회복지정책과정, 보건의료정책최고위과정, 식품및외식산업보건최고경영자과정) 동창회가 모두 참여하는 성대한 행사로 안착시키겠습니다.”

보건대학원동창회는 학부 과정이 없는 특수대학원으로 매우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경험을 갖춘 동문들로 구성된다. 폭넓은 스펙트럼은 풍성한 다채

로움이란 장점과 동시에 동질감 부족이란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회원간, 선후배 간 소통이 중요한 이유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84학년부터 97학년까지 후배 교수들을 대거 부회장으로 영입했다. 취미 모임이 거듭되면 보다 자유로운 소통 분위기가 조성될 거라고.

“지난해 개원 65주년을 맞은 보건대학원은 전임교수 28명, 석사과정생 240명, 박사과정생 75명 규모를 자랑합니다. 동창회는 석박사과정 졸업생을 비롯해 3개의 특별과정 수료생 포함 80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고요. 특별과정 출신도 오래전부터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죠. 진통이 없진 않았지만, 덕분에 기부금도 늘었고, 함께 주관하고 참여하는 행사가 많아져 결속력도 더

강해졌습니다. 공교롭게도 새로 취임한 이태진(경제83-87 보대원88-90) 원장과 임기를 같이해요. 긴밀히 협력해서 동창회와 모교에 보탬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김 회장은 모교 보건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 후 용인대 교수에 부임했다. 감사위원장, 자연과학연구소장 등을 겸임하고 있으며 환경부 환경보전위원회 및 가습기피해자 구제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부인 황성희(식품영양82-86) 동문과 함께 슬하에 세 딸을 뒀다. 생활신조는 ‘감사하고, 칭찬하고, 노력하자’. 주어진 상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원만한 대인 관계를 추구하며, 결과보다 과정에 충실한 모습이 아름답다는 뜻을 담았다.

나경태기자

알림

광고 협찬 부탁드립니다

총동창신문 광고 대행 외주 업체와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동창회 자체적으로 광고를 수주합니다. '서울대총동창신문'은 모교 출신 중견 언론인 25명의 자문을 받아, 매월 5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기업 홍보 및 상품 광고를 위해 많은 이용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남주 편집장 (02-886-2219, news@snu.ac.kr)

구분	규격	광고료
전면	299mm×432mm	600만원(맨 뒷면)
		500만원(내지)
절반	299mm×216mm	300만원
1/4면	299mm×125mm(가로형)	200만원
	175mm×210mm(세로형)	

WHERE?

Q. 전문직 · 엘리트 · 노블레스 결혼은 어디서?

A. 바로여기! 서울대학교 총동창회와
결혼정보서비스 단독 제휴한 국내 유일! 엔노블

대표상담 1577-2050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결혼정보 제휴사
엔노블이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동문전용상담 02-3445-2445)

엔노블 결혼정보회사 서울 / 대전 / 대구 / 부산 / 제주 / LA / 뉴저지 / 아틀란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811 (신사동, 엔노블타워)
www.nnoble.co.kr

등록번호
서울-강남-국내
15-0005

N.NOBLE

MATCH-MAKING BIBLE

2024년 2월 정년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광금주·김윤영 교수 등 35명 정년퇴임

오는 2월 28일 35명의 모교 교수들이 정년퇴임을 맞는다. 모교와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이들의 높은 뜻을 기리고자 그 업적과 약력을 짧게나마 지면에 담았다. 정리=박수진 기자

양승국(국문78-85) 국어국문학과

 한국 현대 희곡을 집중적으로 연구해왔다. 1990년 경향신문 신춘문에 희곡부문에 당선됐으며, 평론가로도 활동해왔다. '지만지 한국희곡선집' 기획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희곡의 이해', '한국 신연극 연구', '한국현대시 500선', '한국 현대극 강론' 등 다수의 저서를 냈다. 모교 대학원 공연예술 협동과정 주임교수를 지냈다.

광금주(가정관리77-81) 심리학과

 발달심리 전공으로 한국 영아-아동 발달 중단 연구, 왕따·학교폭력에 관한 동서양 비교 연구 등 다수의 연구를 진행했다. 사회 현상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대중에게 설명하는 일에도 적극 임했다. 모교 심리학 석사 및 연세대 심리학 박사학위, 조지워싱턴대 교육전문가 학위를 받았다. 최근 저서 '광금주 교수의 콤플렉스 심리학'을 냈다.

홍종인(화학78-82) 화학부

 생체 내 인산염기 연구에 필수인 파이로포스페이트 발색 센서, 파이로포스페이트 형광센서를 개발하는 등 생체 음이온 분자인식 분야에서 많은 연구성과를 이룩했다. 세포생물학, 미생물학, 진단과학 등 인접학문의 분석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 연구다.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모교 환경안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윤영(기계설계77-81) 기계공학부

 모교 기계항공공학부 석좌교수로 컴퓨터를 이용한 기계장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는 AI 기술을 이용해 비파괴검사 진단의 발전에 필요한 '탄성 메타물질' 등에서 탁월한 성과를 냈다. 아시아 학자 최초로 미국 기계학회 레일리 렉처상, 일본 계산공학 회대상을 수상했다. MBC 창작동화대상을 수상한 동화작가이기도 하다.

신영길(계산통계78-82) 컴퓨터공학부

 컴퓨터 그래픽스와 영상처리 전문가로 특히 의료IT 영상 분야에서 크게 기여했다. 환자 영상 판독 솔루션인 '인피니트 팩스'를 개발하고, 학내 기술창업으로 의료용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인 인피니트헬스케어 설립을 주도했다. 지식경제부 장관상인 으뜸기술상 최우수상, 모교 2019 훌륭한 공대 교수상 산학협력상을 수상했다.

최영기(수학교육77-81) 수학교육과

 위상수학 및 기하교육 전공자이자 수학교육 전문가다. 대중 강연을 비롯해 수학동화 '대장수 뽑기 대소동'(공저), 교양서 '이토록 아름다운 수학이라면', '이런 수학 처음이야' 등을 집필하며 수학이 추구하는 정신과 감동을 대중에게 알리는 데 힘썼다.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모교 과학영재교육원장을 역임했다.

이정식(의학76-83) 의학과

 모교 보라매병원 흉부외과 교수로 재직하며 하지정맥류 레이저 최신기술, 폐암 최신치료와 다한증, 액취증 등의 흉강경 수술 분야에서 대가로 알려졌다. 대한정맥학회 회장, 순환기공학회 회장, 보라매병원 흉부외과 과장, 중환자실장, 폐센터장 등과 모교 교수협의회의장을 역임했다. 2023년부터 대전보훈병원장을 맡고 있다.

김명환(영문77-81) 영어영문학과

 19세기 영미소설을 연구하며 문학평론가로도 활동해왔다. 중앙도서관 관장으로 재임할 당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며 복합 문화 공간으로서 토대를 다졌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위원장, 모교 교수협의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청년들을 위한 문학교육 전문기관 '길동무 문학학교' 교장을 맡고 있다.

이정만(지리76-80) 지리학과

 UC버클리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모교에서 문화지리학과 인간생태학, 한국지리학을 연구하며 문화지리학, 한국지리 연구 등을 강의했다. 현장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내외 지역답사 수업을 열정적으로 지도해왔다. 모교 국토문제연구소장,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장을 역임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배운다'(공저) 등을 펴냈다.

성노현(동물77-81) 생명과학부

 면역학 전문가로, 암세포를 죽인다고 알려진 T세포의 국내 1세대 연구자다. 흥선(가슴샘) 내 T세포 분화, 자가면역 질환 예방에 중요한 조절 T세포와 Th17 세포의 분화 등을 연구해왔다. 모교 연구처장, 유전공학연구소장, 한국분자세포생물학회 회장, 국제백신연구소 한국후원회 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스탠퍼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병우(물리77-81) 재료공학부

 나노 구조 제어 분야 전문가로, 리튬 배터리, 연료 전지 등 에너지 저장 매체와 유·무기 하이브리드 태양 전지 등 신재생 에너지 소자 관련 연구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냈다. 다수의 국제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서 국내외 저명 학술지에 200여 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다. 하버드대에서 응용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허철성(축산77-81) 국제농업기술학과

 모교 졸업 후 한국야쿠르트에 입사해 29년간 유산균 연구에 매진하며 '슈퍼100',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쿠퍼스' 등 다수의 히트 제품을 개발했다. 2014년 모교에 부임해 낙농기술과 장내 미생물 등을 연구해왔다. 한국야쿠르트 중앙연구소장, 모교 평창캠퍼스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산학협력실장과 부원장을 지냈다.

손상희(가정관리77-81) 소비자학과

 소비자교육·문화연구실을 이끌며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취약한 소비자의 행동과 소비 사회 문제를 진단하고, 소비자의 역할을 향상시키는 교육과 대안적인 소비문화를 연구하며 다양한 자문 활동도 해왔다. 미국 일리노이대 어버나삼페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한국소비자업무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전범석(의학76-82) 의학과

 모교 병원 신경과 소속으로 파킨슨병과 이상운동질환 분야 권위자다. 불의의 사고로 전신 마비를 겪었지만 치열한 투병 끝에 건강을 회복한 뒤 왕성하게 연구와 강의를 해왔고, 투병기를 담은 책 '나는 서 있다'를 펴내 화제를 모았다. 2025 세계신경과학회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3월부터 남양주 현대병원에서 진료한다.

김은경(한국외대77-81) 서어서문학과

 한국외대 서반어어과 졸업 후 동 대학원 통역번역대학원과 멕시코 과달라하라 자치대에 서 석사, 스페인 마드리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다수의 스페인어 교재와 김동리, 고 은 등 한국문학 작품의 스페인어 번역서를 냈다. 스페인-한국 간 문화 교류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스페인 국왕 십자훈장을 수여받았다.

박기호(건축77-82) 지리학과

 지리정보과학 전문가로 머신러닝과 빅데이터 분석, 시공간 모델링, 보건지리학 등에도 관심을 두고 있다. 미국 워싱턴대 도시계획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UC 산타바바라 전산학과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계지리학연합 지리정보과학위원회 운영위원이며, 국가지리정보체계 민간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최שמ(간호76-80) 간호학과

 성인간호학 전문가로 뇌졸중 환자의 재활과 영양, 인체 구조와 생리, 간호 임상 악리 및 기전 등에 관심을 두고 연구해왔다. 다양한 사회 집단과 환자 집단을 주제로 SCI, SCOPUS급 논문 100여 편을 비롯해 다수의 저서를 냈다. 모교 간호대학장을 지냈고, 미국 버지니아대에서 간호학 석사와 생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종래(섬유공학77-81) 재료공학부

 탄소 소재 연구자로 탄소나노물질의 설계와 탄소나노튜브와 그래핀의 합성 등의 연구에 매진해왔다. 한국탄소학회 회장, 세계 탄소카운슬 공동의장, 아시아탄소학회 협의회장, 국제학술지 'CARBON' 편집위원 등을 역임했다. 모교 기술지주회사 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영국 리즈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희중(농학76-80) 농림생물자원학과

 작물육종 전문가로 20여 개의 우수 벼 품종을 육성해 벼 기 능성 육종의 지평을 열고, 식물육종을 현대화하며 식량 작물 육종학 발전에 기여했다. 4.3배 눈이 큰 거대배아 현미, 유기농 저탄소 쌀 '가바쌀'을 개발해 시중에 내놓기도 했다. 한국육종학회 회장, 모교 농장장, 식물분자유종사업단장을 지냈다.

박재학(수의학77-82) 수의학과

 실험동물의 질병 예방 및 진단을 연구하며, 과학적·윤리적인 동물실험 수행과 동물복지 실천에 힘썼다. 모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장, 한국실험동물학회 이사장, 한국동물실험윤리위원회 협동조합 이사장, 대한수의학회 이사장 등을 지냈다. 일본 홋카이도대에서 독성병리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동물과 인간'(공저)이 있다.

유철규(의학77-83) 의학과

 모교 병원 폐암센터 호흡기내과에서 폐암, 기관지확장증, 천식 등을 진료하며 급성폐손상 및 만성폐쇄성질환의 발병 기전 등에 대해 연구해온 호흡기 분야의 전문가다. 모교 병원 홍보실장,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회장, 대한내과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아시아태평양호흡기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남인(철학81졸) 철학과

 독일어 논문 '에드문트 후설의 본능의 현상학'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고, 응용현상학이라는 개념을 정립했다. 2008년 국제철학원 종신회원에 선출됐으며, '현상학과 질적연구', '현상학과 해석학', '원전으로 읽는 서양철학의 이해' 등 다수의 책을 냈다. 독일 부퍼탈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한민국 학술원상을 수상했다.

조명희(식품영양77-81) 통계학과

 모교에서 영양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고 피츠버그대에서 역학 전공으로 석사, 생물통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컬럼비아대 정교수로 재직하며 생물통계학 분야를 도입하고 2012년부터 모교에 부임해 생물통계학, 딥러닝 등을 연구하며 회귀분석 및 실습, 통계학세미나, 딥러닝의 통계적 이해 등을 강의해왔다.

김성재(간호77-81) 간호학과

 정신간호학 전문가로 성인 및 노인 정신간호, 여성 정신건강, 중독의 예방, 치료, 회복 및 재활, 정신간호중재 등을 연구해왔다. 모교 병원 간호사와 총주대 및 강원대 간호학과 교수를 거쳐 모교에 부임, 간호대학장을 역임했고 한국정신간호학회 회장을 지냈다. '정신간호총론'(공저), '국제간호'(공저) 등의 저서를 냈다.

남상욱(전자공학77-81) 전기정보공학부

 전자기 연구를 기초로 한 무선 전력 전송, 초소형·고이득 안테나, 디지털 RF 회로, 레이더 기술 등을 연구했으며, 모교 전파연구센터장을 역임하며 전파 및 시스템 통합 해석 등 핵심기술을 개발해왔다. 모교 전파공학연구실을 이끌며 박사 30여 명, 석사 60여 명을 배출했다. 카이스트에서 석사, 텍사스대 오스틴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심철웅(회화78-82) 서양화과

 한국 영상 미술과 뉴미디어 아트 분야에 영향력이 큰 작가로 20여 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미국 UCLA에서 미술사와 미디어 아트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사회적인 주제에 디지털 뉴미디어, 인공지능 등을 접목한 작업을 해왔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여수시립미술관 등에서 작품을 소장했다.

윤여성(수의학77-81) 수의학과

 수의조직학 연구자로 동물의 혈액질, 혈림프질 등 면역기관에 대한 형태학적·전자현미경적 연구 등을 해왔다. 모교 실험동물자원관리위원장, 수의학과장을 지냈으며, 10여 년 간 수의대 임상봉사동아리 '팔라스'를 이끈 공로로 수의대가 수여하는 백린교육상(기초분야)을 수상했다. 모교 수의대에서 학사와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종원(경제78-82)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1982년 행정고시 합격 후 경제기획원 행정사무관, KDI 연구위원 등을 지내고 1994년 모교에 부임했다. 경쟁정책, 정책이론, 정보통신정책을 연구해왔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장,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고 모교에서 법인설립추진단장, 행정대학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선구(무역76-80) 경제학부

 미시경제학 중 정보경제학 분야를 연구하며 정보 비대칭에 따른 도덕적 해이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수리적 모형을 설계하고 입증해 세계적으로 주목받았다. 미국 UCLA에서 석사·박사학위 취득 후 홍콩과 학기술대 조교수를 거쳐 모교에 부임했다. 탁월한 강의력으로 학술연구교육상 교육부문을 수상했으며, 다산경제학상을 받았다.

정두수(화학77-81) 화학부

 하버드대에서 화학물리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생분해성 화학 연구실을 이끌며 전기적인 힘을 이용해 DNA나 RNA, 단백질과 같은 생체 분자를 분리하고, 유전자 분석을 통한 진단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모세관 전기영동장치를 주로 연구해왔다. 한국분석과학회 회장, 미국화학회 한국지회 회장 등을 지냈다.

박원우(경영78-82) 경영학과

 미국 피츠버그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은 인사조직 전문가로 팀워크, 권한 부여, 조직문화 등 조직관리 역량에 대해 연구·강의해왔다. 사례 중심의 소통하는 강의로 모교 학술연구교육상, 경영대학 우수강의상을 수상했다. '조직관리', '팀워크의 개념, 측정 및 증진방법' 등 다수의 저서를 냈다. 한국윤리경영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노종선(전기77-81) 전기정보공학부

 이동통신과 부호이론 분야의 전문가로 데이터 프라이버시 보장을 위한 암호화 기술을 개발하는 등 많은 연구 성과를 올렸다. 정보통신부장관 표창, 한국통신학회 학술상 등을 받았다. 한국통신학회 회장을 지냈으며 국제전기전자학회(IEEE) 석학회원,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이다.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공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이용덕(조소77-82) 조소과

 대상을 음각해 입체감을 부여한 '역상조각' 장르를 개척했다. 독일 베를린예술종합대학에서 마이스터철학위를 받고 모교에 부임, 미대 학장을 지냈다. 독일 베를린 숲 뮤지엄, 중국 국립미술관 등지에서 개인전을 열었고 대한민국미술대전 대상, 김세중조각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작품 '위대한 결집'이 울산역 광장에 설치됐다.

김용태(의학77-83) 의학과

 체장암, 담도암 등 체장·담낭·담도 질환의 명의로 꼽힌다. 급성 체장염 발생에 관여하는 물질의 역할을 규명하는 등 연구에서도 많은 성과를 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사장을 지내며 내시경을 통한 조기진단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최근 건강서 '진료실에서 못다 한 체장암 이야기'(공저)를 펴냈다.

이동수(화학공학77-81) 환경계획학과

 모교 유해화학물질 환경동태 연구실을 이끌며 유해화학물질의 배출과 대기·토양·물 등에서의 확산·축적·분해 등을 연구했으며, 지속가능한 폐기물 관리에도 관심을 뒀다. 1991년부터 '환경과 공해연구회'에서 활동하며 각종 사회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미국 텍사스대 오스틴에서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다문화 학생 20만명, 인구 절벽 시대 나라의 보물”

최병규 (산업공학69-73)

한마음교육봉사단 단장·카이스트 명예교수

사재 털어 다문화 교육 봉사 시작
전현직 교사·교수들 엄마·아이 가르쳐

“한국에 시집 오셔서 아이들 교육에 걱정 많으셨죠? 아이가 학교에서 뭘 배우고,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알게 된 걸 축하합니다.”

1월 27일 서울 도봉가족센터에서 열린 도봉다문화엄마학교 1기 졸업식. 학사모와 졸업가운을 갖춰 입은 필리핀, 베트남, 중국, 일본, 타지키스탄 출신 다문화엄마 15명에게 최병규 한마음교육봉사단장이 격려를 보냈다.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재직했던 그는 다문화가정 엄마와 자녀의 교육을 위해 2015년 한마음교육봉사단(이하 봉사단)을 설립했다. 봉사단은 다문화 자녀가 초등학생일 땐 엄마에게 초등 교과목을 가르치고, 중고교생이 되면 아이에게 직접 영어와 수학을 가르친다. 전 과정이 무료이고 전·현직 초·중·고 교사와 이공계 대학교수들이 선생님이다. 엄마학교만 전국에 35곳, 지금까지 졸업한 다문화엄마가 2000명이다.

기계공과와 제조시스템 운영 자동화·정보화 분야의 권위자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 연구자(HCR)에도 뽑힌 그가 정년 후 다른 일을 마다

하고 봉사에 투신한 건 다분히 ‘산업공학자 기질’ 덕이었다. 대형 선박 프로펠러 가공 시스템 등을 개발해 산업 현장에 괄목할 발전을 이끈 그다. 예비 며느리와 얘기를 나누다 우연히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알게 됐고, 평생 해왔듯 “문제가 있으면 해법을 찾아야지” 생각했다. 문헌 속 해외 교육봉사 사례를 조사하고, 다문화 학생이 많은 학교를 찾아 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현장에서선 다문화아이들 교육의 열쇠가 ‘엄마’라고 했다. “초등학생 학습 지도엔 엄마들의 역할이 중요한데 다문화 가정은 어렵다고 하더군요. 숙제도 잘 안 해오고, 선생님이 전화하면 엄마들이 한국어에 자신이 없어 연락도 안 받는다고요. ‘엄마의 지원’ 바퀴와 ‘사교육’ 바퀴로 굴러가는 한국 교육인데, 다문화 가정은 꼭 ‘양쪽 바퀴가 망가진 채 달리는 마차’인 셈이죠.” 선뜻 함께 나서서 이가 없자 주저없이 사재를 털었다. 뛰어난 연구 성과로 사우디 킹 압둘라 대학에 초청돼 3년간 특훈겸임교수를 지내며 받은 거액의 ‘오일 머니’를 종잡돈 삼아 대전에 엄마학교 1호를 차렸다. “사우디 왕은 알까? 자기가 이렇게 좋은 일을 도운 줄.” 봉사단에서 강의하며 도봉 엄마학교 교장을 맡은 후배 박진우(산업공학70-74) 모교 산업공학과 명예교수가 건넨 농이다.

엄마학교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태블릿PC를 지급받는다. 5개월간 국어·수



학·역사·사회·과학·실과·도덕 총 7개 초등 교과목 강의를 원격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대부분 둘째까지 키우며 바쁘게 일하는 다문화 엄마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하고 싶어 교육공학도 공부했죠.” 어느 때나 수업을 듣고, 주말 대면 수업에 출석해 공부한 내용을 질문하고 토론하는 역진행 학습을 도입했다.

학습효과를 높이려면 배운 걸 머리에 저장 꺼내는 ‘인출 연습’만 한 것이 없다고 해 퀴즈와 시험도 자주 친다. 단체 카톡방에선 교사들이 수시로 질문에 답해준다. 실속 없는 다문화 프로그램

에 지쳤던 엄마들은 반가워 했다. 대기자도 많다. “모국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분들입니다. 단지 한국어로 설명하지 못할 뿐이죠. 초등학교 때 배우는 고품셈 방법도 나라마다 달라요. 3번 연속 주말고사 시험에 빠지면 탈락인데, 역대 엄마학교 학생 93% 정도가 나오 없이 졸업했습니다. 모성에 덕분이예요. 아이를 위해 공부하니까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강의 접속 기록을 보면 늦은 밤, 새벽도 많아 마음이 짱해요.”

2016년 시작한 ‘한마음글로벌스쿨’은 다문화 자녀 절반이 실업계고로 밀려나는 현실이 안타까워, “이 아이들을 모든 대학에서 뽑고 싶어하는 학생으로 만들자”며 만든 프로그램. 엄마학교 졸업생의 중·고교 자녀 120여 명이 전현직 이공계 교수들에게 ‘대치동 학원 못지않은’ 영어와 수학 강의를 듣고 있다. “꼭 모두가 대학을 가야 하나” 생각한다면 “아직도 다문화 아이들이 우리 사회 주요 인재가 될 수 있음을 모르는 무지한 소리”라고 그는 일갈했다.

“엄마만 다른 나라에서 왔을 뿐, 대한민국 가정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지난 1년 사이 초·중·고 학생 6만 5000명이 줄었는데 다문화 학생은 1만 3000명 늘어 20만명이 됐어요. 인구 절벽 시대에 수십 조를 써도 늘릴 수 없는 숫자인데 미래 어떤 자산으로 키울지 고민해야죠. 이중언어 능력도 있고, 문화적인 다양성도 갖췄으니 양쪽 나라에

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이들이 처한 구조적 교육위기를 방치해서 낙오자로 만들면 사회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 아납니까? 공평한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외고 진학생과 전교 1등도 나왔고 몇 명은 벌써 대학에 갔다. 설령 공부에 뜻이 없어도 착실히 진로를 찾아가고, 학교에 마음 못 붙이던 아이가 공부를 시작하며 우울하던 가정이 밝아졌다는 말을 들을 때면 기쁘다.

강의하고 연구만 하던 그는 후원을 끌어오기 위해 제안서를 쓰고 백방으로 영업도 댔다. 엄마학교는 일부 지자체와 운영을 분담하지만 한마음글로벌스쿨은 “‘엄마 뺨’으로 중·고교 공부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갈수록 가르칠 아이는 더 많아질 테니 걱정이 태산이다. 월 1만원부터 시작하는 정기 후원에 5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 상당수 전·현직 카이스트 교수지만 최 문분처럼 초창기 카이스트에 진학한 모교 동문이 적지 않다. 그는 특히 은퇴한 모교 동문들이 다문화 교육에 관심을 갖고 적극 나서주길 요청했다.

“쓰다가 남은 돈과 시간을 주려고만 하지 ‘써야 할 돈과 시간’을 할애하는 문화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한 개인의 생각과 아이디어로 끝날 것도 단체에서 활동하면 여론이 되고 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뛰어난 서울대 동문들의 참여를 언제나 기다립니다.” 박수진 기자 문의: www.hanmaum-ec.org



통합 무인운영 솔루션 상담 문의
1522-4345





NICE Total Cash Management Co., Ltd.
한국전자금융주식회사

**스마트 모빌리티 시대를 선도하는
국내 No.1 무인화 운영 관리 전문기업!**



NICE PARK 나이스파크

- 대학교/병원/오피스 등 건물부설주차장 관리
- 주차전용건물 매입/나대지 등 주차장 개발사업
- 투자 및 시공부터 운영까지 원스톱 주차 토탈 서비스



NICE CHARGER 나이스차저

- 전기차 화재 예방 충전소 구축 (열화상CCTV, 화재보험가입)
- 별도 회원가입 없이 편리한 결제 가능
- 2년 연속 환경부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동문 서비스1: 제휴 호텔·리조트·펜션 등

동문과 동문가족(배우자와 이들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이 제휴 호텔 리조트 펜션 등 이용 시,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평생 회비 또는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신 동문 대상, 회원우대증과 동반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수

한국교직원공제회·The-K호텔 앤 리조트

● 일반이용시 (단위: %)

구분	The-K호텔 앤 리조트				비고
	서울	경주	지리산	설악산	
객실	40	주중(50) / 주말(40)	50	50	상·비수기 구분 없음
식음료	10	-	-	-	식사 및 음료 할인
휘트니스	50	5000원 할인	30	-	서울호텔은 투숙시 할인
세미나	30	-	-	-	회의장 렌탈료 할인

구분	라마다 프라자 제주호텔		비고
	객실	주중(60) / 주말·성수기(50)	
식음료	10		식사 및 음료 할인

*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중복 할인 불가)

● 휴스테이(롱스테이) 이용 시 (단위: 원/일)

구분	The-K호텔 앤 리조트			The-K 서드에이지
	설악(20평)	지리산(20평)	경주(일반실)	
3~7일	5만5000~9만	9만~13만	9만5000~12만	3만
8~30일	5만~8만5000	5만~9만	8만	

※ 호텔 및 롱스테이 이용 관련 유의사항
 · 평형별, 요일별, 숙박일자 및 예약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비·성수기 일차 및 요금 매년 변동
 · 사전예약 후 이용 가능하며, 이용 시 대상기관 회원 및 임·직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회원우대증 등) 제시 필수

※ 예약 및 문의: 서울 02-571-8100, 경주 054-745-8100, 지리산 061-783-8100, 설악 033-639-8100, 제주 064-729-8100
 - 서드에이지: 입소 시 보증금의 5% 할인 (예약: 055-530-8100)
 - 예대항상조: 가입 시 최종 8회분 납입 면제. 단, 전화 상담 가입에 한함 (예약: 1566-6644)

엠베서더 호텔 그룹

구분	객실	식음료	연회	예약
노보텔 엠베서더 강남	10%	10%	5%	02-567-1101
엠베서더 서울 풀만	10%	10%	-	02-2275-1101
경원재 엠베서더 인천	10% 주중(일·목)	투숙시 10% Room svc 제외	미팅룸 대여 15%	032-729-1101
이비스스타일엠베서더강남	10%	10%	10%	02-3011-8888
이비스스타일엠베서더명동	10%	10%	10%	02-6020-8888
이비스 엠베서더 명동	10%	10%	10%	02-6361-8888
이비스 엠베서더 인사동	10%	-	10% 대여에 한함	02-6730-1101

※ 상기 요금은 정규요금을 기준으로 한 할인율이며, 중복 할인은 불가함(객실은 홈페이지에서 code(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입력 후 예약 가능, 식음 및 연회는 전화 사전예약 필수,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 호텔 내 직영이 아닌 임대 업장 및 외부 서비스의 경우 할인 대상에서 제외



라마다 군산 호텔

라마다 군산 호텔

(단위: 원)

객실타입	정상요금	주중(일~목)	주말(금~토)	연휴/성수기
스탠다드 더블/트윈	22만	9만5000	11만5000	13만
스탠다드 패밀리트윈/디럭스더블	24만2000	10만	12만5000	14만
디럭스패밀리트윈/윈돌	26만4000	11만	13만5000	15만
디럭스 스위트더블/패밀리 스위트	45만	18만	22만	25만

연휴/성수기 기간안내: 2024년 2/8~2/11, 5/3~5/5, 7/19~8/17, 9/13~9/17, 12/24

특전 1. 주중 객실 무료 업그레이드(객실 가능 시) 2. Early Check-in 14:00 & Late Check-out 13:00(고객 요청 시) 3. 장기 투숙 (7박 이상) 이용 시, 협약 요금 대비 10% 추가 할인. ※ 세금, 봉사료 포함,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및 중복 할인 불가,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예약 및 문의: 063-441-8000

하늘계곡연수펜션

(단위: %)

구분	객실	식음료	세미나	비고
총동창회 할인율	40	10	30	- 객실: 상·비수기 구분 없음 - 세미나: 회의장 렌탈료 할인

※ 정규요금 기준으로 할인 적용 및 중복 할인 불가,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필수
 ※ 예약 및 문의: 043-653-2013, www.skyp.co.kr

고급 식당 할인 혜택

- **필경재 (한정식 전문점)**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시 이용금액의 10% 할인
 ※ 예약 및 문의: 02-445-2115 (서울 강남구 수서동 광평로 205)
- **슈타인도르프 (수제맥주 전문점)** 총동창회 회원우대증 제시 시 이용금액의 10% 할인
 ※ 예약 및 문의: 02-422-9000 (서울 송파구 오곡로15길 11)

결혼정보업체 가입비 할인

- **듀오** 동문이 가입할 시 10%, 동문 가족은 5% 할인 적용 ※ 문의: 1577-8333
- **앤노블** 동문이 가입할 시 20%, 동문 가족은 10% 할인 적용 ※ 문의: 02-3445-2445

동문 서비스2: 건강검진 협약병원

동문과 동문가족(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포함)은 협약병원에서 건강검진 시 최대 50%까지 우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평생 회비 또는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하신 동문 대상, 회원우대증과 동반가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지참 필수

10~30% 감면

서울대학교병원	02-2072-3333	건강검진 10% 우대, 배우자의 부모 제외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02-2112-5500	건강검진 10% 우대
분당서울대학교병원	1588-3369(내선2번)	건강검진 10% 우대, 배우자의 부모 제외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02-870-3333(내선2번)	건강검진 10% 우대
국립암센터	031-920-1212	암검진 10% 우대
강남세브란스병원	1899-7588 ydmchc@yuhs.ac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1588-8668(내선1번)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고려대학교구로병원	1577-9966(내선2번)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배우자의 부모 제외
고려대학교안암병원	02-920-5106, 5491, 6677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배우자의 부모 제외
대림성모병원	02-829-9357, 9359, 9317	건강검진 및 비급여 진료 20% 우대
한국원자력연구원	02-970-1791-3	우대혜택 병원에 문의, 장례식장 15% 우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031-910-7027~8(검진) 031-910-7000(비급여)	건강검진 10% (1~2월 30%) 우대 비급여진료 10% (20만원 한도)
명지병원	031-810-6383	건강검진 20~30% 우대
제천명지병원	043-640-8450/8451	비급여진료 10% 우대
인천사랑병원	032-457-2800	(재료대 및 약제비 제외)
중앙대학교병원	6299-2114	기본건강검진 20%, 치과 비급여진료 10%, 장례식장 안치료 및 빈소 10%(상조 회 가입한 경우 5%)
CM병원	02-2635-8275 070-4698-7817	종합검진비 10%(1~3월 20%), 비급여진료 10%
아주대학교병원	031-219-4000	종합검진비 10%(1~3월 20%)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070-4665-9137	종합검진비 10%
화홍병원	031-8021-6947~8(검진) 031-8021-6958(비급여)	종합검진비 20% 비급여진료 10%

최대 50% 감면 (일반검진 25만원 / 종합검진 35만원 / 정밀검진 50만원)

구로성심병원	02-2067-1500	
메디플라자 웰스케어	02-3475-7100(내선1번)	
차음건진센터	삼성 청담차음(프리미엄)	1800-7750(내선1번) 02-3015-5001
한국의학연구소(KMI)	1599-7070	본원(광화문), 여의도, 강남, 수원, 대구, 부산, 광주
한신메디피아	02-596-4565(내선2번), 3476-7760	

동문 서비스3: 경조 서비스

평생 회비 또는 당해 연회비를 납부하신 동문은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 본인 부담) ※ **근조기 및 축하기 배송요금이 2024년 4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화환·조화, 경하기·근조기

(단위: 원)

구분	근조기	경하기	조화·화환	영정바구니
서울	2만5000 ⇒ 3만	3만 ⇒ 3만5000	8만 (전 지역 동일)	10만 2개 세트 (전 지역 동일)
서울근교	3만 ⇒ 3만5000	3만8000 ⇒ 4만3000		
수도권	3만8000 ⇒ 4만3000	4만2000 ⇒ 4만7000		
경기외곽	4만2000 ⇒ 4만7000	4만5000 ⇒ 5만		
지방	4만8000 ⇒ 5만3000	4만8000 ⇒ 5만3000		
제주도	7만 ⇒ 7만5000	7만 ⇒ 7만5000		

● 신청_경조 서비스 신청

신청 및 문의: 전화 02-702-2233 ※축하기는 배송일 이틀 전(영업일 기준)까지 접수 가능

● 입금_신청 후 비용 계좌로 입금

계좌번호는 신청 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

● 배송_입금이 확인되면 3~4시간 안 배달

도서지역과 교통불편지역은 요금 및 소요시간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회원우대증을 제시하시면 우대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총동창회 평생회비 또는 당해 연회비를 납부하신 동문님은 회원우대증을 모바일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휴사 이용 시 본 우대증을 제시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모바일 회원 우대증 발급방법

오른쪽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발급 화면으로 연결 또는 홈페이지 www.snu.or.kr 첫 화면 하단 「회원우대증」 배너 클릭 (회원가입 필요)
 *스마트폰에서 접속하시면 편리합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홈페이지 가임을 원치 않으시면 사무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우대증을 문자메시지로 보내드립니다.
 *문의: 총동창회 사무처 대표전화 02-702-2233 문자전용 1877-2039

【회원우대증 바로가기】



Mall SNUA 품목 8만개 확대기회 라이온스복지물 운영업체와 계약



본회 동문 전용 쇼핑몰 Mall SNUA가 올해 1, 2월에 걸쳐 '라이온스 복지물'을 운영하는 업체와 상품공급계약을 추진한다.

라이온스 복지물은 국제라이온스협회의 8만여 회원을 대상으로 8만여 개 품목을 취급하는 폐쇄몰이다. 라이온스 복지물의 상품을, 가전제품부터 시작해 점차적으로, Mall SNUA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김종열(응용수학68-72) 사업단장은 "이번 계약은 Mall SNUA 운영의 획기적인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동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선택이 기획전을 2월까지 계속한다. 다림질이 필요 없는 남성 와이셔츠 '어반트'가 최대 72%, 1등급 암소한우 세트 53%, 특대형 곰병장 핫팩 30개를 49% 등 할인 판매하는 등 식품 및 생활용품 등 특가에 판매했다. LG전자 기획전에선 65인치 울트라 HD TV를 55%, 휘센 오브제콜렉션 워너 스탠드에어컨을 51%, 울트라 PC 옛지 노트북을 47% 할인 판매하는 등 반값에 선보였다. 그밖에 주방용품·생활용품·소형가전·건강기능식품·패션상품·반려동물용품 등 모든 상품 카테고리에서 유명브랜드 상품이 다양한 모델로 준비돼 있다. 김 단장은 "스마트폰 검색 몇 번이면 쉽게 최저가임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동문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3~6월 행사 안내

행사 문의: 02-702-2233

조찬포럼

일 시: 3월 14일 (목) 오전 7시 30분
 장 소: 플라자호텔 LL층 그랜드볼룸 (시청 앞)
 강연자: 김영호 통일부장관
 주 제: 최근 북한 실상과 정부의 대북 및 통일정책
 참가비: 5만 원 (조찬 및 도서 제공)

국토문화기행

일 시: 4월 12일 (금) 오전 8시 30분
 집합장소: 서울대 관악캠퍼스 정문 출발
 답사지: 부여 사비백제
 안내 및 해설: 성봉주 박사
 참가비: 5만 원 (중식 제공)

수요특강

일 시: 4월 24일 (수) 오전 7시 30분
 장 소: SNU 장학빌딩 2층 베리타스홀 (공덕역 8번 출구)
 강연자: 강창희 행복 100세 자산관리연구회 대표
 주 제: 행복 100세, 인생설계, 자산설계
 참가비: 2만 원 (김밥·생수 및 도서 제공)

모교 발전을 위한 나눔골프대회

일 시: 5월 13일 (월)
 장 소: 렉스필드 cc
 참가비: 50만원

나눔 가족음악회

일 시: 5월 23일 (목) 오후 7시 30분
 장 소: 롯데콘서트홀
 지 휘: 금나세 음악감독

등산대회

일 시: 6월 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남한산성 5코스(남문-서문-북문-동문)
 참가비: 2만 원 (오찬 제공)

조찬포럼

일 시: 6월 13일 (목) 오전 7시 30분
 장 소: 플라자호텔 LL층 그랜드볼룸 (시청 앞)
 강연자 및 주제: 미정
 참가비: 5만 원 (조찬 및 도서 제공)

동문맛집

“맛있는 음식보단 건강한 음식, 저만의 경쟁력 됐어요”

심미정 (AMPFRI 31기)
내발산동 발산삼계탕 대표

한의학 기반의 독특한 삼계탕
코로나 때 대박난 22년된 식당

변함없이 맛있는 삼계탕, 사장님과 직원들 친절이 5성급 호텔 같은 집, 발산의 자랑. 서울 강서구 내발산동에 있는 ‘발산삼계탕’ 이용 후기다. ‘돈 벌려고 장사하는 식당이 자랑스러울 것까지야’ 처음엔 씩 동의하기 어려웠지만, 심미정 대표를 만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개가 끄덕여졌다. 1월 31일 심미정 동문을 인터뷰했다.

“폐업에도 요령이 있어야 하고 돈이 필요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버텼습니다. 요령도 돈도 없어서. 그러다 보니 올해로 22년이 됐네요.”

2002년 7월 북날 시즌에 경상도 지역 프랜차이즈 삼계탕인 ‘주왕산삼계탕’의 수도권 분점으로 최초 오픈, 개업 첫날부터 손님이 몰려들어 하루 평균 1400그릇을 팔았다. 순조롭게 자리를 잡는 듯했으나 그해 겨울 조류독감이 전 세계에 퍼졌다. 조류독감 뉴스가 매일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끓여 먹으면 된다는데, 그래도 어린이나 노약자는 조심해야 된다고 하더라 등 ‘카더라통신’이 난무했다. 먼저 장사하던 동네 삼계탕집이 모두 문을 닫았다.

“폐업하려면 건물을 원상복구시켜야 했는데, 건물주의 요구가 까다로웠어요. 개점휴업 상태에서 갖고 있던 집도, 살고 있던 집도 다 팔았죠. 2007년

‘발산삼계탕’으로 이름을 바꿔 재개업했습니다. 그때부터 ‘건강한 음식’을 만들자고 다짐했죠. 요리가 취미인 것도, 전공인 것도 아닌 제가 다른 식당과 경쟁하려면 남들이 다 하는 ‘맛있는 음식’ 갖고는 어렵도 없으리라 판단했어요. 조류독감 ‘한파’를 견디는 5년 동안 안 팔아본 음식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메뉴를 취급했지만, 한정식이거나 고깃집이 아닌 삼계탕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발산삼계탕은 식재료 간 음양의 조화로 닭 비린내를 잡는 것은 물론 건강까지 더 알차게 챙겼다. 양의 성질을 따는 닭고기와 인삼에 음의 성질을 따는 검은콩과 잡곡을 가미하여 음양의 조화를 이룬 것. 화학조미료는 일절 넣지 않을 뿐더러 소금마저 최대한 줄였다.

“어릴 적 배앓이 할 때 어머니가 송충이를 끓여주셨습니다. 보통은 그저 누룽지에 물을 붓고 끓이는데 저희 어머니는 잡곡 볶은 것과 쌀뜨물을 같이 넣고 끓여주셨죠. 동의보감 탕액편에도 잡곡으로 탕을 끓이는 요법이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 건강식에 대한 나름의 지식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때 경험을 떠올려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경희대 약선 전문가 과정을 수료했고, 배운 지식을 메뉴에 적용했죠. 누룽지삼계탕, 산삼배양근능이삼계탕, 용미봉탕 등을 개발했습니다. 같은 삼계탕이어도 재료와 육수가 다 달라요.”

떡배기를 상 위에 올리자 인삼의 알싸한 향과 잡곡의 고소한 냄새가 올라왔다. 국물엔 기름이 떠다니지 않았고 묽기는 미음 같았으며 고소하고 담백했다. 연하고 부드러운 닭고기 안에 아이 주먹만큼 약밥이 담겼다. 고기는 뼈와 살이 순순히 떨어져 나와 혀에 감겼



다. 국물까지 한 그릇 다 비웠는데도 식사 후 흔히 입안에 남는 텁텁함이나 향신료가 굵고 간 듯한 자극도 없었다. 과연 아파서 먹을 게 마땅치 않은 손님들이 많이 찾은 만했다.

“실은 제가 작년에 암 수술을 받았습니 다. 2년 정도 지나 발견했는데 그즈음 손님 중 한 분한테서 ‘사장님 얼굴이 꼭 암 걸렸을 때 나 같아’라는 말을 들었어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됐고 2개월 만에 자리를 털고 나와 다시 일을 시작했죠. 암과 싸우면서, 건강한 음식을 만든다는 자부심에 자신감이 더해졌어요. 발산삼계탕 먹고 건강해지는 효과를 직접 체험했으니까요. 강서구에 허준박물관 있는 것 아셨나요? 그래서 그렇지 우리 동네가 한의학이나 건강식에 관심이 많아요. 지역 특색과 저희 식당 운영의 방향이 잘 맞았죠.”

22년 식당을 운영하면서 부딪히는 위기가 어디 조류독감뿐이겠는가. 2012년엔 메르스가 덮쳤고, 2019년엔 코로나 19 팬데믹이 수년간 전 세계를 휩쓸었다. 그러나 준비하는 자에게 역풍도 순풍이 되는 법. 심 동문은 코로나 때 외려

역대 최고 매출을 올렸다고 말했다. 코로나 창궐 직전 지역 배달 플랫폼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보양식 수요가 폭발하면서 없어서 못 팔 지경이었다고. 메르스 때는 일일이 손님의 체온을 측정해 고열을 떨 경우, 정중히 돌려보냈다. 항의하는 손님도 있었지만, 지지해주는 손님이 훨씬 더 많았다.

“과일이며 떡을 배달 몇 박스씩 선물해 주시는 단골손님이 계세요. 마음만 감사히 받겠다고 사양했더니, 여기 오면 너무 즐겁고 그래서 발산삼계탕이 오래오래 성업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거니 부담 갖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22년 노하우를 살려 식품사업이란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총 100석 규모. 포장 및 배달, 주차 가능. 나경태기자 문의: 02-3662-3930

화제의 동문 유튜버

‘이익주는 역사’ 이익주 (국사84졸)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

“지금 우리는 고려 공부가 필요하다”

KBS 대하 사극 ‘고려 거란 전쟁’의 인기와 함께 고려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이보다 훨씬 전부터 ‘고려 알리기’에 진심이었던 역사학자가 있다. 이익주 서울시립대 교수다.

모교 국사학과에서 학사와 석사·박사학위를 받은 이 동문은 고려시대 정치사와 고려-몽골 관계를 연구해왔다. ‘차이나는 클라스’, ‘역사저널 그날’ 등에 출연해 역사의 대중화에 힘쓰다 마음껏 역사 얘기를 하려고 2022년 10월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2월 중순 7만여 명인 구독자 수가 하루가 다르게 불어난다.

채널은 고려사를 중심으로 우리 역사 속 다양한 인물과 사건을 다룬다. 모든 이야기는 철저히 사료가 기반이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기록을 짚어가며 군더더기 없이 조목조목 설명을 이어간다.

그가 보여주는 고려는 새롭고 매력



‘인물백과사전’에선 고려 거란 전쟁의 승자인 강감찬과 ‘최대 수혜자’ 김은부를 비롯해 잘 알려지지 않은 영웅인 양규, 지체문, 하공진 등을 다뤘고, 길이 회자되는 고려의 외교술에도 많은 에피소드를 할애했다. 거란과 송 사이 능란하게 줄타기를 한 고려는 “강대국을 상대하는 작은 나라의 외교 자세를 잘 보여준다”며 “우리도 고려처럼 작은 외교를 하며 빈틈을 찾고 국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밖에 족보의 진실과 오해를 짚어준 ‘족보 시리즈’가 최다 조회수를 자랑한다.

“역사란 불완전한 지식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위험한 지식이기도 하죠. ‘그 불완전한 위험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주, 많이 공부하면서 자기 생각을 정리해가는 방법뿐입니다. 제 유튜브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박수진기자



SAE MOBLIUS™ 에서 글로벌 최신 Automotive & Aerospace 정보를 만나보세요

화제의 책

“역사학은 국민교육, 시대정신과 분리 안돼”

“역사전쟁으로 ‘잃어버린 진실’의 비판적 복권”이라는 부제를 단 ‘바로 본 대한민국 정사(1948~2023)’는 제6공화국 들어 좌편향된 근·현대사를 바로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술담당기자 출신의 현대사가인 저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무엇이며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나”란 근본적인 질문에서 현대사를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건국, 6·25, 4·19 역사적인 진실 △5·16 군사쿠데타와 패러다임 시프트 △제6공화국 △국사교과서 파동과 사관논쟁 등 총 4부로 나뉜다. 특히 제6공화국 들어 역대 정권들의 역사 인식과 태도를 비판적으로 서술했다. 김영삼정부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대구폭동’과 ‘제주 4·3사건’을 ‘10월항쟁’과 ‘제주 4·3항쟁’으로 바꾸는 등 1948년 대한민국 건국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편향 역사조작의 이적표를 세웠다고 했다. 김대중정부는 ‘제2건국’을 선언, ‘1948년 건국체제’를 대체했고, 노무현정부도 ‘정의가 패배하고 기



바로 본 대한민국 정사 박석홍(불문63-67) 현대사 저술가 글방과 책방

회주의가 득세한 역사’라며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했다. 문재인정부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해”(8·15경축사)라고 했다.

‘역사전쟁’은 좌편향 정권의 왜곡 서술로 본격화했다고 규정한 저자는 “정권이 바뀌면 국사 교과서를 바꿔야 하

나”란 질문에서 교과서 논쟁을 다뤘다. “대한민국 건국의 정치혁명과 제3공화국의 산업화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6공화국의 김영삼-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초종교 역사교과서 서술에 대한 지식사회의 문제 제기가 있었으나 오류와 편향적 기술은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저자는 사관 논쟁과 관련, “한국 역사학은 일제식민사관, 중국동북공정, 수정주의사관, 식민지근대화론, 친북자학사관, 전제주의사관에 응전해야 한다. 건국초기 민족주의 사학, 사회경제사학, 실증사학은 일제 식민사관 극복에 몰입했으나 현대학문으로 발전하지 못했고, 일본의 신식민사관과 북한의 주체사관의 도전에 크게 흔들렸다”고 기술했다. 1975년 역사학자 강만길은 분단시대 역사학은 통일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분단사관론과 민중사관은 역사학의 정치화 격동을 초래하고, 586운동권의 교본이 되어 1980년대 체제변혁론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한국근현대사의 쟁점연구’, ‘역사전쟁’ 등을 이미 저술한 저자는 “역사학은 국민교육·시대정신과 분리될 수 없다”면서 “6공화국 교과서 파동과 역사전쟁에서 제기된 대한민국사 왜곡은 학문 외적인 정치적 사건이었으며 앞으로 국사학계의 한국사 연구를 기초로 정치학, 사회학, 철학, 교육학 등이 참여한 학제적 토론회를 거치면 ‘바른 교과서’ 작업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저자는 역사학계의 논쟁과 역대 정권의 역사 인식을 기술하면서 해당 학자, 관련자 등을 모두 실명으로 적었고, 정치학자 노재봉, 김영자, 이택휘, 김영호 등과 새로운 사료발굴을 토대로 현대사 일부를 정립한 언론인 남시욱, 조용중, 손세일, 정일화 등의 저서 등을 다뤄 돋보였다.

최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을 영화한 ‘건국전쟁’이 화제에 오르는 가운데 1948년 ‘건국’과 ‘정부 수립’으로 대립되는 ‘건국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경형 편집인

EXHIBITIONS

올해의 작가상 2023

3월 31일까지 종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2023’ 수상자인 갈라 포라스-김·전소정(조소 01-05)·이강승·권병준(불문91-97) 작가의 전시. 전소정 동문은 영상, 조각, 출판 등을 바탕으로 물리적 경계의 전환이 일상의 감각적 경험을 관통하는 것에 대해 작업해왔다. 사운드 작업과 퍼포먼스 연출 작업에 전착해온 권병준 동문은 최근 로봇을 이용한 기계적 연극을 연출하고 있다.

문의: 02-3701-9500

지도와 영토

3월 24일까지 경기 안산 단원구 경기도미술관



한국 현대미술사의 중요한 작가로 기록될 5인으로 8개국에서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진행한 정재철(조소83-87) 작가, 벽제의 밤풍경을 그린 고 공성훈(서양화83-87) 작가, 1980년대 민중미술을 주도한 ‘현실과 발언’ 창립 동인으로 사회 문제를 다룬 김근희(회화67-71)·김정현(회화65-72)·민정기(회화68-72) 작가의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 031-481-7000

BOOKS

아흔이후2

박종대(국어교육51-56) 시조시인 책만드는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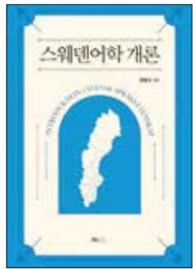


박종대 동문의 최근 시조 모음집. 사색과 성찰, 깨달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랜 연륜에서 묻어나는 교훈적인 잠언의 느낌이 강

하다. 김석철 시조시인은 “한편 한 편이 시상의 포착과 그 전개 과정, 구성과 제목 선정, 다양한 표기법, 적정 시어 취택, 이미지의 형상화, 비유와 상징 등을 제대로 갖추면서, 쉽게 읽히며 공감을 주는 강점이 있다. 깨달음을 주는 시조를 읽는 재미가 있고, 감상하는 맛과 맛이 느껴진다”고 평했다. 주후쿠오카 총영사 등을 지낸 박 동문은 1995년 시조문학으로 등단해 시조집 ‘노모’ 등을 출간했다. 한국시조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스웨덴어학 개론

변광수(언어58-65) 한국외대 명예교수 한국외대 지식출판콘텐츠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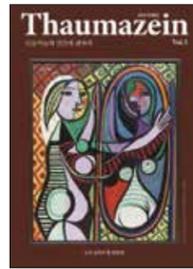


이 책은 스웨덴어의 구조와 체계, 변천에 대한 언어학적 기술서라고 할 수 있다. 유만근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이 책은 흔히

보는 그냥 개별언어학 개론서가 아니라 현대 일반언어학 모든 분야가 총망라된 광범위하고 튼튼한 기반 위에 스웨덴어의 구조적 특성 사항 모두를 갈라썬듯 체계적으로 차곡차곡 안감잡 있게 쌓아올린 멋진 건축물”이라며 “스웨덴어 전공 학도는 물론 어떤 언어 전공자라도 일반 언어학 지식의 폭을 크게 넓혀 자기 전공 언어를 더욱 밝은 눈으로 깊이 보는데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천했다.

타우마제인 Vol.2

이한구(철학64-68) 타우마제인 이사장 외 캐릿하우스



인문 철학 잡지 ‘타우마제인(Thaumazein, 경이로움)’ 2호가 출간됐다. 이번 호는 ‘인공지능과 인간에 관하여’를 주제로

삼았다. 장간호에서 ‘경이로움’을 키워드로 23편의 농밀한 원고를 통해 깊은 울림을 주었다. 이번 호에서도 수준 높은 필진들의 21개 글이 인문학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소크라테스와 챗봇의 대화: 지능에 대하여(브라이언 레데코프 도슨 칼리지 교수)’, ‘생성형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적 잉여(장동인 KAIST 교수)’, ‘인간 없는 전쟁(이택광 경희대 교수)’ 등의 글이 인공지능과 우리 삶의 관계에 대해 다시 보게 만든다.

시간의 길이

유자효(불어교육과68-75) 한국시인협회장 서정시학



작년에 희수를 맞은 유자효 시인이 “살 곳 못지 않게 죽을 곳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한다”면서 작년 말 그의 19

번째 시집 ‘시간의 길이’를 냈다. 인생의 저물녘에서 죽음을 군더더기 없이 명료하고 담대하게 읊었다. ‘주변인들의 사망 소식을 일상처럼 들으면서도/ 늙은이는 늙은이끼리 반갑다/ 즐겁다’(늙은이 세상). 시집의 1부는 자유시 63편을, 2부는 10편의 정형시시조를 실고 있다. ‘하르르/지는 꽃잎에/깜짝 놀란/한순간’(봄날은 간다). 그의 시조 작품도 삶과 죽음을 대 우주의 숨쉬기로 바라보면서도 못 생명이 차나적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고 있다.

국가 시스템 개혁

최종찬(무역68-72) 전 건설교통부 장관 나무한그루



정부 주요 부처에서 30여 년간 근무한 최종찬 동문이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 전략을 제시한다. 최 동문은 경제기

획원, 공정거래위원회, 건설교통부,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에서 각종 중요 경제 정책 수립에 참여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저출산 고령화 심화, 인공지능, 로봇 등 과학기술의 발전, 양극화 심화 등 경제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 규제나 명령 등 대중요법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과 국가사회시스템이 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래의 기원

이광형(산업공학74-78) KAIST 총장 인플루엔셜



미래는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매일 쏟아지는 신기술과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경제 상황 및 국제 정세 속에 앞으로의 미래

가 어떤 모습일지 의견이 분분하다. 수십 년간 미래를 연구해온 이광형 동문은 그 해답을 오늘의 인류를 있게 한 ‘빅히스토리’에서 찾았다. 특히 그는 역사 속에 일어난 환경(도구)과 인간(사상)의 상호작용에 주목한다. 그리고 자연과 시대의 환경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적응한 자만이 역사의 주인공이 된다고 주장한다. 책에는 5년여간 분석하고 정리한 우주와 인간의 역사 그리고 미래 문명사가 담겨 있다.

서울대 석학이 알려주는 자녀교육법

김병도(경영78-82) 모교 경영학과 교수 외 서울대출판문화원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여덟 가지 주제를 선정해 책으로 엮은 ‘서울대 석학이 알려주는 자녀교육법’ 시리즈가 출간됐다. 성공적인 자녀교육은 학부모들의 간절한 바람이다. 서울대 석학들이 올바른 자녀교육 방향부터 구체적인 학습 능력 향상 방법, 자녀와의 소통법에 이르기까지 자녀교육에 실제적인 도움을 준다. 지금까지 김병도 교수가 경영·경제 편, 이경화(수학교육86-90) 수학교육과 교수가 수학 편, 최나야(언어95-99) 아동가족학과 교수가 문해력 편, 이병민(언어81-88) 영어교육과 교수가 영어편을 썼다.

중동이야기

문성환(사회교육90-97) 주아프가니스탄 대리대사 / 박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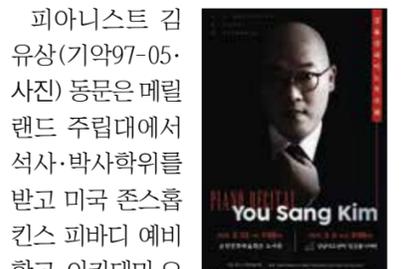
책은 사업적 인연은 있으나 중동에 관해 보다 포괄적인 시각을 갖고 싶은 이들, 특히 기업인들이 염두에

됐다. 문 동문은 중동 전문가로 외교관에 입직하지 않았지만, 우연과 인연이 겹쳐 세 번이나 중동에서 근무했다. 덕분에 중동에서 한국과 전세계 우수 기업들의 흥망성쇠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중동과의 거래에서 성패는 경제적 변수만이 아니라 이슬람과 아랍문화와 같은 문화적 변수나 중동을 둘러싼 지정학적 변수에 대한 종합적 시각이 있어야 실패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CONCERTS

김유상 피아노 독주회

3월 3일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피아니스트 김유상(기악97-05·사진) 동문은 메릴랜드 주립대에서 석사·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존스홉킨스 피바디 예비학교, 아카데미오 브 파인아트에서 강의하며 연주자로도 활동해왔다. 베토벤 피아노 소나타 21번 ‘발트슈타인’과 리스트 ‘메피스토 왈츠’, 거슈인 ‘랩소디 인 블루’ 등을 연주한다. 문의: 02-6412-3053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신춘음악회

3월 14일 대전시립연정국악원 큰마당



대전시립연정국악단이 국악과 클래식계의 젊은 스타들과 함께 봄의 시작을 알린다. 이승환(국악00-04) 동문이 예술감독 겸 지휘를 맡아 국악관현악 명곡을 선보이고, 하모니시스트 박종성씨가 ‘새야 새야’, ‘흔적’, 정가 보컬리스트 하윤주씨가 ‘3월에 오는 눈’, ‘황홀극치’ 등을 공연한다. 문의: 042-270-8585

동정

'동정'란은 동문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인사, 수상, 행사, 애경사 등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매달 30일 이전에 보내주시면 다음달 신문에 게재됩니다.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이메일 news@snu.ac.kr 전화 02-886-2219 팩스 02-886-2218

인사

이주영(법학70-74 전 국회부의장) 1월 23일 세계도덕재무장(MRA/IC) 한국본부 신임 총재에 선임.

신학철(기계공학 75-79 LG화학 부회장) 1월 15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막한 세계경제포럼의 최고위급 자문기구인 국제비즈니스위원회(IBC) 위원으로 추대.

최성준(법학75-79 전 방송통신위원장) 1월 31일 네이버 뉴스혁신포럼 위원장에 선출.

박정택(행대원 76 입 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 2월 1일 세계동위원소기구(WCI) 사무총장에 선임.

백인자(수학79졸 한세대 석좌교수) 1월 19일 한세대학교 제9대 총장에 선임.

유철환(법학79-83 변호사) 1월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취임.

정충기(토목공학 79-83 모교 건설학 경공학부 교수) 1월 12일 제56대 대한토목학회 회장에 취임.

정은보(경영80-84 전 금융감독원장) 1월 18일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에 내정.

문재완(공법81-85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월 2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임 위원에 위촉.

왕윤종(경제81-85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1월 10일 국가안보실 3차장에 임명.

육동인(서양사81-87 전 청와대 춘추관장) 1월 24일 제11대 경인여대 총장에 선임.

원용걸(경제81-85 서울시립대 총장) 1월 1일 한국국제경제학회 제47대 회장에 취임.

김동환(기계설계 82-8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 1월 17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제13대 총장에 취임.

박종훈(공법82-86 부산고법 부장판사) 1월 29일 대전고등법원장에 임명.

오영환(외교82-86 전 중앙일보 도쿄총국장) 1월 26일 주니가타총영사에 임명.

이강덕(정치82-88 전 KBS 대외협력실장) 1월 5일 KBS N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이우철(공법82-86 부산지법 부장판사) 1월 29일 인천가정법원장에 임명.

장덕현(전자공학 82-86 삼성전기 대표이사 사장) 12월 26일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에 선출.

진성철(사법82-86 대구고법 부장판사) 1월 29일 특허법원장에 임명.

김용덕(공법83-93 대전지법 부장판사) 1월 29일 대전지방법원장에 임명.

안종혁(경영83-87 한국수출입은행 혁신성장금융본부장) 12월 30일 한국수출입은행 전무이사에 선임.

이왕재(농경제83-87 전 SK에코플랜트 에코에너지BU 대표) 1월 2일 한양에너지부문 대표에 취임.

천대엽(사법83-88 대법관) 1월 15일 법원행정처장에 취임.

현택환(화학83-87 모교 석좌교수) 최근 스웨덴 왕립 공학 학림원 회원으로 선출.

강인선(외교84-88 대통령실 해외홍보비서관) 1월 10일 외교부 2차관에 임명.

김국현(사법84-88 창원지법 부장판사) 1월 29일 서울행정법원장에 임명.

이우탁(동양사84-88 연합뉴스 선임기자-본지 논설위원) 1월 9일 관훈클럽 제71대 총무로 선출.

정우성(대학원84-86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월 16일 현대차 정몽구재단 이사장에 임명.

류창수(정치85-89 전라북도 국제관계대사) 1월 26일 주칭다오총영사에 임명.

김세윤(공법86-91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1월 29일 수원지방법원장에 임명.

배형원(사법86-90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1월 29일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

황수성(농경제86-94 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 1월 30일 한국공학대학교 제9대 총장에 선임.

김상규(사법87-92 수원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1월 29일 수원회생법원장에 임명.

옥철(신문87-92 연합뉴스 편집국장 권한대행) 1월 29일 연합뉴스 편집총국장 직무대행에 선임.

최보근(사회87-93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1월 22일 문체부 기획조정실장에 선임.

김태훈(국민윤리교육88-92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1월 15일 대구시 부교육감에 취임.

은용순(수학88-92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 1월 2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교학부총장에 임명.

정계선(공법88-93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1월 2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임명.

권순호(사법89-94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1월 29일 부산회생법원장에 임명.

홍호성(행대원89-91 전 주영국대사관 문화원장) 1월 22일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장에 선임.

최남호(국제경제 89-95 산업부 대변인) 1월 10일 산업부 2차관에 임명.

박범석(사법90-95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수석부장판사) 1월 29일 서울행정법원장에 임명.

신종열(경영90-95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1월 29일 울산가정법원장에 임명.

심우정(공법90-95 대검찰청 차장검사) 1월 18일 법무부 차관에 임명.

임상범(외교90-94 전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 1월 26일 주독일대사에 임명.

권기수(미학91-97 카카오펀터 최고운영책임자) 1월 19일 카카오펀터 공동대표에 내정.

박상욱(화학91-95 모교 과학학과 교수) 1월 25일 대통령실 초대 과학기술수석 비서관에 임명.

안성배(경제91-9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 1월 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협력부원장에 선임.

권순정(공법92-98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1월 22일 법무부 검찰국장에 보임.

전수진(산업디자인 92-96 연세대 교수) 1월 30일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장에 임명.

우동혁(전기공학 98-05 전 구글 테크니컬 리드 매니저) 최근 삼성전자 부사장에 선임.

이재환(법학98-04 무신사 리스크매니저먼트 본부장) 1월 17일 한국사내변호사회 회장으로 선출.

김용재(정치04-08 전 유엔협회세계연맹 수석담당관) 1월 1일 유엔협회세계연맹 서울사무국 사무국장에 임명.

김가로(행대원07-16 여성가족부 정책기획관) 2월 1일 여성가족부 대변인에 임명.

신자용(AFP 19기 법무부 검찰국장) 1월 22일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임명.

김효준(ASP 1기 전 BMW코리아 고문) 1월 2일 대창그룹 부회장에 취임.

곽충구(국어교육 70-77 서강대 명예교수) 1월 14일 제65회 3.1문화상 수상자에 선정.

신기남(법학70-74 전 국회의원) 최근 장편소설 '마요르카의 연인'으로 진해문 화원이 주관하는 진해군문학상 수상.

정덕균(전자공학 77-81 모교 전기정보공학부 석좌교수) 1월 25일 제7회 강대원상 수상자에 선정.

이호택(법학79-83 사단법인 피난처 대표) 1월 17일 포스코 청암상 봉사상 부문 수상자에 선정. 시상식은 오는 4월 포스코센터에서 개최.

박남규(화학교육81-88 성균관대 화학공학 고분자공학부 석좌교수) 1월 25일 한국공학한림원 대상 수상자에 선정.

진은숙(작곡81-85 작곡가) 1월 25일 '클래식 음악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에른스트 폰 지멘스 음악상 수상.

안진호(금속공학 82-86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1월 25일 제7회 강대원상 수상자에 선정.

김유수(화학87-91 도쿄대 교수) 1월 14일 제65회 3·1문화상 수상자에 선정.

김빛내리(미생물88-92 모교 생명과학부 석좌교수) 1월 10일 임성기연구자상 대상 수상자에 선정.

최장욱(응용화학 96-02 모교 화학생물공학부 교수) 1월 25일 한국공학한림원 젊은공학인상 수상자에 선정.

하정우(컴퓨터공학 97-04 네이버클라우드 인공지능 이노베이션 센터장) 1월 25일 한국공학한림원 젊은공학인상 수상자에 선정.

김명렬(영문62졸 모교 명예교수) 최근 상하 이태준 탄생 120주년 맞아 전집 출간 주도. 김 동문은 이태준의 조카.

이명철(의학67-73 모교 명예교수) 1월 18일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의학회 '명예의전당' 헌정식에서 헌액됨.

임정기(의학68-75 모교 명예교수) 1월 18일 더플라자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의학회 '명예의전당' 헌정식에서 헌액됨.

김창완(잠사71-75 가수) 최근 새 앨범 '나는 지구인이다' 발매.

상가 명복을 빕니다

- 최영화(성악50-54 재미 성악가) 1월 8일 별세(93세)
- 서영수(사회교육55졸) 1월 12일 별세(94세)
- 김혜자(기악55졸 전 가톨릭대 교수) 1월 18일 별세(89세)
- 이영욱(법학52-56 전 법무부 차관) 1월 21일 별세(92세)
- 신동호(정치53-57 전 조선일보 대표) 1월 12일 별세(90세)
- 신상갑(법학53-57 전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1월 16일 별세(92세)
- 서정욱(전기공학53-57 전 과학기술부 장관) 1월 11일 별세(90세)
- 김화중(심리54-58 전 경시대 교수) 1월 23일 별세(89세)
- 조경식(상학55-59 전 농림부장관) 1월 29일 별세(87세)
- 한상호(의학56-62 재미 의사) 1월 5일 별세(87세)
- 김정홍(화학교육57-61 전 경인양행 부회장) 1월 27일 별세(86세)
- 안태용(정치63졸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1월 26일 별세(89세)
- 박정식(상학58-63 전 동일레나운 대표) 1월 19일 별세(84세)
- 최용균(행정59-65 전 한남슈퍼 대표) 1월 25일 별세(84세)
- 최인섭(기계공학61-65 전 한국정밀기계 대표) 1월 15일 별세(83세)
- 심재덕(전기공학64-68 전 우진씨보 대표) 1월 17일 별세(79세)
- 박재완(전기공학68-72 전 남양엔지니어링 전무) 1월 17일 별세(76세)
- 채경철(물리69-74 KAIST 명예교수) 1월 15일 별세(75세)
- 이민희(신문대학원73-75 전 KBS미디어 사장) 1월 28일 별세(83세)
- 홍대의(독문70졸 전 코트라 사장) 1월 9일 별세(78세)
- 강운정(의류89-93) 1월 4일 별세(55세)
- 강상욱(사법95-00 서울고법 판사) 1월 12일 별세(48세)

수상

기타

보내주신 사랑, 역사가 됩니다

보내주신 귀한 회비는 관련법규에 따라 엄격·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자랑스러운 44만 서울대인의 새 역사 창조에 소중한 자산으로 사용됩니다.

고문·자문위원·회장단·특별과정 동창회장·논설위원·평생회비·연회비·지부분담금 등 : 2023. 12. 24 ~ 2024. 1. 23
성명 오른쪽 숫자 : 입학 연도(미확인시 졸업 연도) / 특별과정은 기수 표시

회비 납부 방법

구분	입회비	연회비	평생회비
일반회원	10,000원	50,000원	500,000원 (65세 이상은 300,000원)
이사회원		150,000원	-

회비 납부하시면

- 매월 총동창신문 제공
- 익년도 탁상달력 제공
- 경조 서비스 이용
- 건강검진 우대

- 입회비는 입회 시 한번 납부하시면 됩니다.
- 회비는 연회비와 평생회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연회비와 평생회비 중 한 가지만 선택해서 납부해 주십시오.
- 지로 : 지로용지를 가까운 금융기관의 공과금 자동화기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은행계좌 : 다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면 됩니다. (성함, 학과, 입학 연도를 같이 표기 바랍니다) 예금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농협 079-01-442414 신한 140-001-180304 우리 1005-401-137376 국민 827-01-0248-009
- 신용카드 : www.snua.or.kr 첫 화면 오른쪽 중간 '동문회비·후원금' 배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없이도 사용 가능)

고문

△현경대 법대 60

자문위원

△이창원 법대 55

상임부회장

△권오현 공대 71 △안양국 사대 75

△이수만 농대 71

부회장

△김종규 HPM 34

평생회비·일반

△김민성 공대 21 △고정숙 농대 78

△권순덕 행대원 18 △김서윤 사회대 02

△김선화 음대 11 △김성은 의대 17

△김세준 공대 83 △김양후 공대 05

△김용배 법대 06 △김우석 공대 90

△김태영 공대 81 △김태일 AMP 93

△김한권 의대 82 △김현수 공대 84

△김현홍 공대 70 △김효준 법대 07

△도영경 공대 14 △문현선 음대 92

△박병준 공대 00 △박양자 미대 64

△박은정 간호대 08 △박정식 상대 58

△박정은 법대 00 △박현기 법대 04

△박현진 의대 12 △박형일 법대 06

△박해정 자연대 02 △배영준 공대 07

△백성욱 사회대 81 △송규민 사회대 10

△송태근 공대 65 △신근식 법대 63

△신예원 법대 16 △신재혁 의대 95

△신재형 경영대 10 △신정현 AMP 82

△심영석 공대 72 △오소림 공대 96

△오윤경 자연대 97 △유수민 인문대 17

△유지상 경영대 15 △윤성로 공대 92

△윤춘식 의대 93 △이동수 의대 76

△이동환 자연대 14 △이문화 AMP 94

△이상경 AMP 83 △이왕재 농대 83

△이정철 농대 76 △이정훈 공대 99

△이종석 사회대 83 △이준호 농생대 96

△이지연 경영대 20 △이태섭 법대 81

△이희래 농대 75 △정종권 공대 69

△전세진 AIP 66 △전영상 공대 09

△정동일 FNP 13 △정연주 인문대 19

△정영진 공대 04 △정진영 ACAD 27

△조동기 AIP 33 △지명훈 AWASB 10

△진은경 공대 05 △진재경 경영대 10

△채재영 생활대 03 △최문영 인문대 18

△최은혜 치대 17 △한상호 법대 68

△한춘환 의대 72 △허찬수 대학원 72

△홍기성 GLP 42 △홍석균 공대 89

△황종호 자연대 12

연회비 - 이사

◆인문대 △조진용 87

◆사회대 △김구섭 72 △황기호 77

◆자연대 △허은기 84

◆간호대 △권인각 77 △남은숙 75

△이미라 01

◆경영대 △박주선 86 △임성균 77

◆공대 △김형건 04 △문석형 50

△박동식 68 △설재훈 74 △유복모 65

△이충기 66 △이환범 56 △인응식 69

△최경영 64 △홍찬기 74

◆농생대 △강원봉 77 △권태걸 57

△김태봉 81 △박진구 60 △서원준 67

△이종현 80 △주민영 88 △최승호 83

△문정현 99

◆문리대 △이동호 56 △이종한 62

△임종대 63

◆법대 △김기완 59 △김기천 59

△김주현 81 △심우정 90 △안홍렬 75

△이상철 95 △이종상 54 △이주관 97

△정기용 77 △정대권 75 △정호영 66

△주우식 78 △최종길 83

◆사대 △김점술 82 △이병필 88

△정상윤 74 △주일업 02

◆상대 △박병준 51 △유석홍 61

△이영서 61

◆수의대 △김창수 64 △오효성 77

◆약대 △김영택 74 △김 유 60

△맹호영 81 △주명희 81

◆음대 △이상열 84 △이정현 97

◆의대 △김예원 68 △안병현 67

◆치대 △김현풍 60 △손일수 71

△양수정 83

◆대학원 △손충기 79 △이희성 81

△신인철 68 △신동연 03

◆경대원 △신동연 03

◆국대원 △신동연 03

◆행대원 △윤여동 78 △함원빈 73

◆한대원 △김연수 96

◆AMP △김주수 69 △이상욱 57

△이윤로 50

◆AIP △박영기 29 △박종욱 38

△양진호 61 △이갑순 09

◆ACAD △김동호 82 △김종식 60

△최수근 51

◆ABP △이수남 39

◆HPM △김경태 10 △안영미 28

△안호원 06

◆AMPPP △이은세 09 △이인근 02

◆AFB △홍경래 11

◆AMPFRI △곽기홍 41 △박규현 35

△유영기 23 △정해문 32

◆ACPMP △강두한 16 △박홍석 06

△신두섭 15

◆FIP △박석환 09 △이경희 12

◆ALP △백종각 12 △이완국 31

◆SPARC △이승호 34

◆AFP △김성주 11

◆ASP △김혜옥 03 △서우택 23

◆BCP △박상원 10 △석도수 22

◆ABKI △황자연 11

◆AWASB △박해영 05 △최일락 06

△한영숙 03

연회비 - 일반

◆인문대 △김수현 81 △김수현 01

△박소민 10 △박송희 08 △안광국 81

△오성민 97 △이동언 12 △장영실 92

△정병설 84 △차지연 97 △최영조 00

△홍기선 79

◆사회대 △고은수 16 △김병철 81

△김태근 91 △문아람 08 △민규동 89

△박상훈 87 △박서현 17 △박용현 90

△박재진 11 △염해림 06 △이규영 93

△이세호 21 △이지은 95 △이창호 07

△전우영 13 △조용수 21 △함지연 94

◆자연대 △김한민 10 △묵인희 82

△문승주 16 △박찬연 01 △이규현 79

△이정연 14 △최수근 83 △최정철 92

△홍주영 93 △홍지훈 09

◆간호대 △김현아 79

◆경영대 △김태양 82 △박규성 02

△유우상 71 △이영재 97 △이정선 09

2024년 단대별 누적 회비납부현황

총 437명 *1월 23일 현재



△이평재 89	△주희정 16	△찬원치에 20	△허미경 81	△김경준 13	△김슬지 21	△김선리 문리대 64	600만원 (2300만원)
◆공대	△권경덕 62	△김기남 73	◆의대	△김지훈 21	△김태한 03	△김형민 98	△이기용 사대 68 150만원 (450만원)
△김도훈 99	△김민석 14	△김상식 02	△김지영 15	△박용재 65	△이승재 72	△김상복 문리대 57 11만4000원 (1억111만4000원)	△이준복 AMP 81 125만원 (1000만원)
△김세종 09	△김세환 00	△김용구 76	◆자유전공	△정다예 12		△김동호 문리대 62 100만원 (2억2100만원)	△김현길 GLP 31 100만원 (1650만원)
△김재홍 94	△김정훈 89	△김종규 03	◆치대	△강정욱 83	△박경표 75	△배무환 경대원 66 100만원 (1033만원)	△손경희 HPM 39 100만원 (5900만원)
△김창홍 84	△김택수 69	△김현술 10	◆국대원	△박윤선 90	△백승호 76	△윤선일 사대 99 100만원 (100만원)	△우희영 GLP 37 50만원 (2350만원)
△류홍열 97	△박기철 72	△성낙원 68	◆법대원	△백지연 94	△안교희 99	△안성모 68	△신상길 공대 68 30만원 (780만원)
△안정기 03	△양창국 60	△김태성 99	◆치대원	△이상업 91			△신상길 법대 53 30만원 (30만원)
△원덕연 81	△유시은 95	△윤여준 88	△오세원 12	△손상익 85	△한성수 80		△이창건 공대 49 30만원 (540만원)
△이정섭 80	△이기석 04	△이원준 09	◆행대원	△김원순 14			△최병국 사회대 78 30만원 (820만원)
△이은배 83	△이종섭 96	△이푸른 21	◆한대원	△김원철 88			△김종재 농대 54 20만원 (50만원)
△정준호 14	△장혁진 94	△전보성 13	◆공전원	△윤정렬 88			△박주미 치대 81 20만원 (540만원)
△정병일 93	△정원배 59	△최병관 13	◆국농원	△김경민 19	△강준호 18		△용환승 공대 79 20만원 (600만원)
△최용상 85	△홍석준 17	△홍영화 07	◆AMP	△김경민 19	△강준호 18		△이기수 대학원 70 20만원 (520만원)
△황재혁 17			△김성은 93	△김경도 54	△김태일 93		△이윤종 의대 87 20만원 (480만원)
◆농생대	△강광희 57	△강남훈 77	△김정은 93	△김경도 54	△김태일 93		△김영구 12만원
△박동규 56	△안희철 68	△유지성 59	△김해린 79	△심행진 16	△오연수 04		△강지훈 공대 89 10만원 (100만원)
△임봉주 65	△고성훈 10	△김남호 85	△윤용양 66	△이기대 32	△정진용 32		△김경호 사회대 86 10만원 (480만원)
△김현철 00	△백규진 14	△손동환 87	△조남용 68	△탁현수 89			△김현일 사대 13 10만원 (430만원)
△손유성 13	△이수욱 21	△이진명 13	◆AIP	△노관규 20			△박성철 치대원 10 10만원 (80만원)
△지재현 08	△허경수 00	△홍세운 99	◆ACAD	△김상열 58	△김정훈 96		△안우주 음대 79 10만원 (1710만원)
◆문리대	△김영주 65	△김정환 62	◆이학동 44				△김경호 의대 93 10만원 (460만원)
△박찬남 48	△서욱식 69	△문태호 66	◆HPM	△김봉수 21	△신지연 38		△이경중 공대 98 10만원 (610만원)
△최인숙 58	△최인일 68		△이경한 34				△이승우 사회대 72 10만원 (570만원)
◆미대	△김정환 92	△민경우 66	◆AMPFRI	△서승용 45			△이용철 농대 67 10만원 (50만원)
△박수연 18	△윤여동 18	△조유인 20	◆ACPMP	△김진선 19			△이유림 공대 16 10만원 (70만원)
◆법대	△김성호 87	△문현식 70	◆GLP	△김래억 43	△이병길 41		△이종일 농대 68 10만원 (210만원)
△민경우 50	△양지선 17	△유국현 69	△이원재 33				△전승우 행대원 10 10만원 (210만원)
△이정렬 96	△정연박 99	△한상근 74	◆ALP	△이병철 07			△정혜선 사회대 83 10만원 (510만원)
◆사대	△구한결 18	△김광호 73	◆ABKI	△이금남 04			△최우아 보대원 01 10만원 (320만원)
△김여진 91	△김예원 12	△김정길 57	◆KFL	△김유선 25			△최정운 인문대 93 10만원 (55만원)
△김향경 61	△김효임 04	△박수빈 16	◆FNP	△한정삼 11			△여영하 사대 59 5만원 (445만원)
△신인나 07	△신재영 18	△염도균 59	◆AWASB	△노문달 04			△이연의 인문대 90 5만원 (123만원)
△오현철 93	△정혜진 18	△조광현 76					△전기평 의대 06 5만원 (430만원)
△조규근 76	△조수지 21	△진시형 18					△조정호 사회대 97 5만원 (490만원)
△홍서현 12	△홍현선 94						△최이슬 의대 14 5만원 (70만원)
◆상대	△구희일 61	△김정환 60					△한기룡 경대원 71 5만원 (220만원)
△문영지 55	△임정일 62	△전수영 57					

시대유감: 정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갔어

추억의 창



오홍권

의학95-02
분당 모교 병원 외과 교수

중학교에 다니는 딸은 걸그룹 에스파(Aespa)를 매우 좋아한다. 최근 이들이 리메이크 신곡으로 컴백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더니 딸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리메이크된 곡은 바로 서태지와 아이들의 '시대유감'이었다. 이 노래가 처음 발표되었던 1995년은 나에게도 특별한 해로, 바로 대학에 입학한 시기였다. 검은 바탕의 DOS 시절을 지나 Windows 95라는 혁신적인 운영체제의 등장으로 컴퓨터 사용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있던 때였다. 당구장을 전전하던 학생들은 점차 게임방으로 몰려가 컴퓨터 게임에 빠져들었다. 나의 세대는 아날로그 시대의 막바지와 디지털 시대의 서막을 함께 경험한 특별한 세대다.

아날로그 시대의 느슨한 연결이 여전히 나에게 매력적이다. 녹두거리 입구의 사회과학서점, '그날이 오면'의 전면 게시판은 그런 매력의 일부였다.

게시판은 그런 매력의 일부였다. 그곳엔形形色색의 메모지들이 붙어 있었고, 약속 장소는 그룹 이름을 적은 제목 아래 자그마한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시간에 맞춰 도착했지만, 사람들 사이로 바로 향하기 싫을 땐 서점 안에서 책을 구경했다. 서가 한 구석엔 레코드 가게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음반들이 있었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 유통된 비합법 음반들이었는데, 대부분은 당국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카세트테이프 형태였다.

공연윤리심의위원회(공연)는 문화공보부 산하 기관으로, 음반과 영화, 비디오 등 문화예술 작품을 감독했다. 이 기구는 정권의 이념에 부합하는 대중예술을 선호했고,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사전심의'였다. 작년에 개봉한 김지운 감독의 '거미집' 같은 영화는 이러한 심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서태지와 아이들도 사전심의의 예외가 아니었다. 4집 앨범에 수록될 예정이었던 '시대유감'은 일부 가사가 과격하고 현실을 부정적으로 그렸다는 이유로 불가 판정을 받았다. '모두를 뒤집어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네', '정직한 사람들



일러스트 김나은(디자이너17-23) 그래픽 디자이너

아날로그 시대의 느슨한 연결이 여전히 나에게 매력적이다. 녹두거리 입구의 사회과학서점, '그날이 오면'의 전면 게시판은 그런 매력의 일부였다.

의 시대는 갔어' 같은 부분이었다. 이에 서태지는 가사를 전부 삭제하고 연주곡 형태로 앨범에 실었다. 이는 사전심의에 대한 수동적 항의였다. 팬들과 시민들의 지지로 이 문제는 국회로 옮겨졌고, 결국 1996년 '음반과 비디오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전심의 제도는 폐지되었다.

사전심의와 관련하여 가수 정태춘의 역할도 매우 중요했다. 서정적 포크 음악을 하던 그는, 80년대를 거치며 제도의 틀을 벗어나 자신의 음악을 전개했다. 1990년대 초, 그는 두 개의 앨범을

비합법적으로 발매했고, 검열 철폐를 당당하게 요구했다. 이 외로운 싸움은 결국 정부의 고발과 기소로 이어졌고, 이에 질세라 정태춘과 박은옥은 1994년에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1996년, 헌법재판소는 음반에 대한 사전심의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사전심의는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우리 대중음악은 이때부터 진정한 표현의 자유를 얻게 되었다.

울퉁불퉁한 길을 걷다 돌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다. 넘어진 아이들은 다쳐서 울고, 울음이 그치면 다시 길을 간다. 성숙한 어른이라면 뒤따르는 이들을 위해 돌을 치우고, 한 발 더 나아가 매끈한 길로 포장할 생각을 하고 실행한다. 리더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제도는 문제를 인식하고 그에 대해 고민한 사람들의 노력이 길게 남는 결과물이다.

*오홍권 동문은 모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분당 모교 병원 대장암센터의 외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2018년 한미수필문학상 대상을 수상했고, 영화로 보는 의학 이야기 '의과대학 인문학 수업'과 메디컬 에세이 '타임 아웃'을 출간했다.

과학·공학 10가지 도전적 질문 ⑤

뇌와 같은 인지구조의 인공지능 만들 수 있을까?

장병탁 (전자계산82-86) 모교 컴퓨터공학부 교수

이인아 (심리90-96) 모교 뇌인지과학과 교수

닫힌 환경(closed environment)의 한정된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하는 현재의 인공지능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불확실한 환경과 문제에 스스로 대응하지 못한다. 반면,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사람의 뇌는 발달 과정에서 경험을 통해 인지구조(cognitive architecture)를 변형하고 성장시키면서 적응한다. 인간의 뇌와 같이 동적인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인지구조를 형성하며 발달해 나가는, 아기의 마음(baby mind)을 가진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AI) 기술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라는 강력한 학습 알고리즘의 개발에 힘입어 다양한 패턴을 인식하고 예측하는 기술 분야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현재의 AI 기술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들은 대체로 방대한 데이터와 인간의 지도(supervision)가 주어져 있는 환경에 한정되기 때문에 현재의 AI는 '닫힌 환경(closed environment)'에서만 좋은 성과를 낸다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하지만 현실세계는 지금의 AI 관점에서 너무나 가변적이고 애매한 요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술이 필요하다. 그 고민의 일환으로 AI가 인간의 뇌처럼 주변 환경의 변화에 빠르고 안정적으로 적응하면서 인지하고 행동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인간의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몸을 통한 행동인 반응(response)이다. 인간의 뇌는 평생동안 해마(hippocampus)를 통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경험적 학습(experiential learning)'을 하고 세상에 대한 거대한 인지모델(cognitive model) 혹은 인지구조(cognitive architecture)를 완성해 간다. 이와 달리 현재의 AI는 몸이 없기 때문에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아닌 정해진 정보를 수동적으로 학습하고 판별하는데 그친다. 다시 말하자면, 현재의 AI 기술은 인간의 뇌와 달리 체화된 인지(embodied cognition)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몸을 가지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지각-행동 사이클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기 위해서는 AI에 체화된 인지구조를 설계해야 하는데, 이는 설계의 개념이 기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AI를 요구한다.

인간의 뇌와 같이 인지구조를 스스로 생성해 나가는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뇌의 작동원리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고, AI의 현재 발전 패턴과는 다른 알고리즘을 생각해내야 한다. 이 두 가지 모두 현재로서는 어려운 일들이다. 인간의 뇌는 약 1000억개의 뇌세포들이 수백 조 개의 시냅스로 연결된 복잡한 구조로 형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수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뇌의 인지적 기전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뇌의 구조적-기능적 원리를 단순한 방식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다른 한편으로, 현재의 AI 기술은

모교 국가미래전략원의 '과학과 기술의 미래 클러스터'(클러스터장 이정동)에서 최근 '그랜드 퀘스트 2024'(포르체)를 펴냈습니다. 이정동 클러스터장은 "도전적 질문(Grand Quest)이 진정한 혁신의 출발점"이라고 말합니다. 10개의 도전적 질문을 통해 최신 과학·공학의 이슈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서울대총동창신문에서 10회에 걸쳐 그 내용을 전합니다. -편집자 주



Grand Quests 연재 순서

1. 집적회로기반 양자컴퓨팅
2. 프라이버시 기반 인공지능
3. 효소모방 촉매
4. 추론하는 인공지능
5. 체화 인지구조 인공지능
6. 인공지능 기반 항체설계
7. 노화의 과학
8. 초미세/초저전력 반도체
9. 환경적응적 로봇
10. 초경량 배터리

패턴인식과 예측의 성능을 올리는 데 매몰되어 있어,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에 도전하기 위한 여러 보완적인 기술들이 부족한 실정이다. 한마디로 체화된 인지구조를 갖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플랫폼이 무척 부실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뇌의 구조와 작동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뇌과학, 인지과학, 심리학 등 관련 학문의 초융합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인지 구조에 관한 기존의 연구로 ACT-R, SOAR, ICARUS 등의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전통적인 계산주의적 인지모델들로 볼 수 있으나 인지구조와 관련된 AI를 개발하기 위한 시도로 보기는 어렵다. 최근 딥러닝(deep learning)이나 트랜스포머 방식의 초거대 AI 모델은 신경망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뇌의 작동방식을 일부 모사했다고 볼 수 있으나 인간과 같이 실시간으로 적응하고 학습하며 발달하는 AI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른 대안적 시도는 많은 데이터를 사전에 준비하여 학습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몸을 가지고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자기조직에 기반한 비지도 학습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이다. 마치 아기의 마음과 같은 상태에서 출발한다는 뜻에서 아기마음(baby mind) AI라고 할 수 있다.

AI가 몸을 가지고 환경에 대응하며 상호작용할 수 으려면 인간의 뇌와 같은 인지구조(cognitive architecture)를 가지고 학습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뇌세포들은 서로 긴밀히 연결된 시냅스(synapse)

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적응적 유효성이 입증된 연결들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가지치기(pruning)된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 안에서 행동하는 지능을 발휘해야 하는 뇌로서는 이 방법만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유일한 진화적 솔루션이었을 것이다. AI 분야에서는 모델의 크기와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 딥러닝 모델에서 불필요하거나 중요도가 낮은 파라미터를 제거하는 것이 뇌의 가지치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뇌를 모방한 체화된 인지구조(embodied cognitive architecture)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이보다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한다.

2022년 9월, 매년 열리는 AI DAY 행사에서 자율주행기술로 유명한 테슬라에서 두 발로 걷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하였다. 일론 머스크는 운전자들이 주행한 데이터를 AI에 학습시키는 방식의 테슬라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통해 휴머노이드 로봇(옵티머스)에 탑재된 인공지능을 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완전자율주행차 개발을 최근에 포기한 거대 자동차 회사 예시와 같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불확실하면서도 애매모호한 환경에서 스스로 학습하며 대처할 수 있는 AI 로봇이 탄생할 수 없다. 인간처럼 행동을 구현할 몸이 있고 그 몸을 움직일 적응적 인지구조를 가진 AI 기술이 등장한다면, 복잡한 현실세계에서의 활동제약을 극복하여 인공지능 시장뿐만 아니라 로봇시장에서도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관악논단

한국인 생존·핵균형 대담한 전략 절실하다



이우탁
동양사84-88
연합뉴스 선임기자
본지 논설위원

연초부터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충격을 몰고 왔다. 시작은 저명한 북한 연구자들인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가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이었다.

연초 몰아닥친 ‘한반도 전쟁 위기설’

이들은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며,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게다가 1990년대 1차 북핵 위기 당시 미국측 협상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전 미국 국무부 북핵특사마저 “2024년 동북아시아에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최소한 염두에는 두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특히 북한의 움직임이 이런 위기를 더욱 증폭시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보고에서 남북관계를 “더 이상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라고 규정하더니 1월 10일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도화해 버릴 것”이라는 등 초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북한은 행동에도 나섰다. 1월 중순 극초음속미사일 발사와 수중 핵무기 해일,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

이후 한반도 전쟁 위기설이 한반도를 강타했다.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도 가열됐다. 한국과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전면전 가능성을 일축했다. 실제로 전면전을 하기에는 북한의 태세가 미비하고, 핵도발을 잘못하면 한반도는 공멸이고, 북한 체제도 종말을 맞는다.

하지만 우발적인 국지적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24년은 한국에는 총선이, 미국에선 대선이 진행되는 선거의 해다. 북한이 이를 간과할 리 없을 것이다.

북한은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하고 선제적 공격이 가능한 핵교리를 천명했다. 이른바 ‘핵보유 전략국가’를 가능하게 한 구조적 배경은 무엇일까. 필자는 미중패권경쟁이라는 국제정치의 구조를 북핵 문제에 접목해보았다. 미국과 중국, 그리고 북한이라는 3국의 전략적 삼각관계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한반도 위협세력으로 존재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다.

2019년 2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상기해보자. 한때 김정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톱다운 방식’의 화려한 외교 쇼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와 비핵화를 맞바꾸자는 도박과도 같은 협상에 나섰다.

미중 패권경쟁과 북 ‘핵보유 전략국가’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의 제의를 거부했다. 왜 그랬을까. 중국과의 패권경쟁에 돌입한 미국에게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이제 최대관심사가 아니다. 과거 1, 2차 북핵 위기 때와 달랐던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동결과 인센티브 제공이라는 과거 패턴에서 벗어나 ‘하노이 노딜’에서 보듯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는 대신 중국 때리기에 전념했다.

그런 미국에 맞서 중국도 전략적 가치가 커진 북한 보호에 주력한다. 북중 동맹이 갈수록 강화되는 이유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확인한 이상 미중 관계가 절대 다시 과거와 같은 협력관계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김정은은 알게 됐다. 특히 북한에게 ‘제재의 사슬’에서 비껴갈 수 있는 공간을 제공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가하려

해도 공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북핵 이슈는 중국에게 핵비확산보다는 세력균형 이슈로 전환됐고, 이것이 북한이 사실상의 핵보유국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준 것이다.

북 핵보유국화와 한반도 핵균형 전략

북한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존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선 한반도 내 핵균형이 흔들리게 됐다. 북한의 현상변경 시도로 인해 한반도 정세는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생존을 담보하기 위한 대담한 전략을 구축해야 한다.

필자는 ‘한반도형 핵균형’이라는 개념과 정책을 제안한다. 이 방안은 북한이 미중 전략경쟁의 틈새를 파고든 것처럼 한국도 미국과 중국 관계의 변화를 잘 활용하는 안보전략을 구사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출발한다.

무엇보다도 ‘핵에는 핵으로’라는 관점에서 북한의 핵무력 수준에 비례해 절대 부족함이 없는 수준의 억제력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반도 상황에 맞는 ‘맞춤형 핵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방안이 미국의 확장억제의 강화가 됐든, 전술핵 재배치가 됐든, 한국인의 생존과 안전을 담보할 ‘신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이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고, 핵심 목표는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통사적으로 보면 미국이 한국전쟁 이후 전술핵을 한반도 배치했던 1957년부터 전술핵을 철수했던 1991년이라는 30여년간의 역사,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과 이를 저지하려 했던 지난 30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북한의 핵무력 완성(2017년) 이후 향후 30년의 시간을 다시 한반도 비핵화로 돌아가는 목표를 실현하는 기간으로 제시하는 의미가 있다.

변명하지 않을 권리



교직원의 소리
최희진
대학원13-15
모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2023학년도 1학과와 2학기 사이에 소소한 변화가 있었다. 학생들이 강의의 수강을 취소하고자 할 때, 더 이상 교원의 승인이 필수가 아니게 된 것이다. 이는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개정(2023.6.1.)에 따른 것이다. 정직히 말하자면 이 변화가 반가웠다.

해당 규정의 개정 이전에는 교원이 학생의 수강취소를 승인해야만 학생의 수강취소가 최종적으로 완료될 수 있었다. 문제는 수강취소를 신청할 때 학생들이 수강신청 취소 사유를 반드시 입력해야 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모든 취소 사유가 정직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추측된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서 수강을 취소한다는 정도의 사유면 정말 정직하다. ‘개인 사유’라는 네 글자는 결국 어떠한 이유도 알리지 않는, 그저 그 칸을 채워야만 신청 버튼이 활성화 되기에 채운 글자에 지나지 않는다. 그 외 생각도 못한 이유들이 갑자기 (특히 중간고사를 마친 직후) 쏟아지는 것을 보고 있다면 쓴웃음이 날 수밖에 없다.

물론 정말 피치 못할 사유로 수강을 취소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하지만 정직하지 않은 취소 사유들을 함께 보고 있으면 제도가 학생들의 거짓말을 부추기는 느낌마저 드는 날도 있었다. 이미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사를 피력하는 데까지 승인을 받아야 하더니 그것도 기이했다. 무엇보다 교원의 입장에서, 강의를 진행해나가는 데에 중요한 것은 학생의 수강 의사일 텐데,

그 의사가 이미 없는 학생에게 변명까지 요청해야 하는 제도는 여러모로 민망했다.

해당 규정 개정 이전 학생들이 수강취소를 위해 담당 교원의 승인을 구해야 했던 것은, 사제시간의 예의를 지킬 것을 제도화해준 역사의 산물이었던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 예의의 제도가 당초 취지를 벗어나 무의미한 변명과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꼴이 되어버렸다면, 그 제도는 이미 허울만 남은 예의를 공허하게 붙들고 있었던 셈은 아닐까. 그래서 변화가 반가웠다. 학생들에게는 변명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다. 그리고 교원에게도 공허한 변명이나 거짓말을 듣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다. 무엇보다, 그런 것을 제도가 부추겨서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난 학기가 편했다. 어떤 변명을 하지 않아 주어서, 수강을 취소했던 학생들에게 고마웠다.

만평

이원복
건축66입
덕성여대 명예교수



요 주의! 부화뇌동(附和雷同)

느티나무칼럼

정년 이후 더 멋진 삶을 위해



전경하
독어교육87-91
서울신문 논설위원
본지 논설위원

최근 KBS의 예능프로그램 ‘골든걸스’를 즐겁게 봤다. ‘골든걸스’는 인순이(66세), 박미경(58세), 신호범·이은미(57세)가 걸그룹이 되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가수로서 성공한 그들이 합숙까지 하며 춤과 노래를 배워 아이돌처럼 데뷔했다. 건강하다면,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걸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 골든걸스는 여세를 몰아 6월 까지 전국 콘서트를 열고 있다.

누 곳이 일 계속하는 선배들 눈길 현직때와 다른 편안한 열정 느껴

30년 이상 일했던 언론사에서 은퇴한 선배는 1년의 휴식기를 지나 지난해부터 지방의 대학교에서 일주일에 한번 두 시간가량 언론 관련 강의를 한다. 강의를 시작하고 나서 쉬던 기간에 비해 눈에 띄게 밝아졌다. 강의 준비가 쉽지 않지만, 그래서 더욱 열심히 자료를 찾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한다. 금융사에서 35년 일하다 퇴직한 선배는 조직관리 경력을 살려 친구의 중소기업 운영을 돕고 있다. 만날 때마다 본인이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을 소개하느라 바쁘다.

은퇴한 직장에서 독립한 후배들이 차린 회사에서 일하게 된 지인은 자신을 찾았다는 사실에 감동하며 후

배들의 멘토로 자리잡았다. 나름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선배들의 삶은 그들에게 많은 스트레스와 집중을 요구했다. 그래서인지 회사 다닐 때는 은퇴 이후에 쉴 수 있기를 많이들 갈망했다. 하지만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 무려한 삶을 버티기가 힘들다는 걸 증명하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 어디선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전 직장에 다녔을 때와 다른 편안한 열정이 느껴진다.

정년 이후에 무엇을 할까. 스스로에게 하는 질문이고 50대에 접어든 이후 종종 받는 질문이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 다양한 일을 하려고 할 거다. 이제 일하는 시간과 집중도를 줄이면서 계속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은퇴를 준비하는 방법인 듯하다. 일을 놓게 되면 다시 일해야 할 때 일머리를

잃어 우왕좌왕할 수도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좋겠다. 20년 장롱면허를 극복하고 지난해 운전운을 시작하면서 자동차 계기판, 도로 위 표시 등에서 소소한 발견을 하고 있다. 100세 시대라더니 70대가 넘어서도 건강하게 활동하는 지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건강하고, 모임에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경험을 즐긴다는 점이다. 때론 지갑도 기꺼이 연다. 그분들을 보면서 오늘도 몸과 마음을 훈련하고 둔 관리에 신경을 쓴다. 멋진 정년 이후의 삶을 위해서.

서울대 총동창신문

발행인 김중섭	편집인 이경형	편집장 김남주	기자 나경태·박수진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 연구공원 416호			
전화 02-702-2233	팩스 02-886-2218	이메일 news@snu.ac.kr	
편집디자인 Sac design	인쇄 중앙일보		

*칼럼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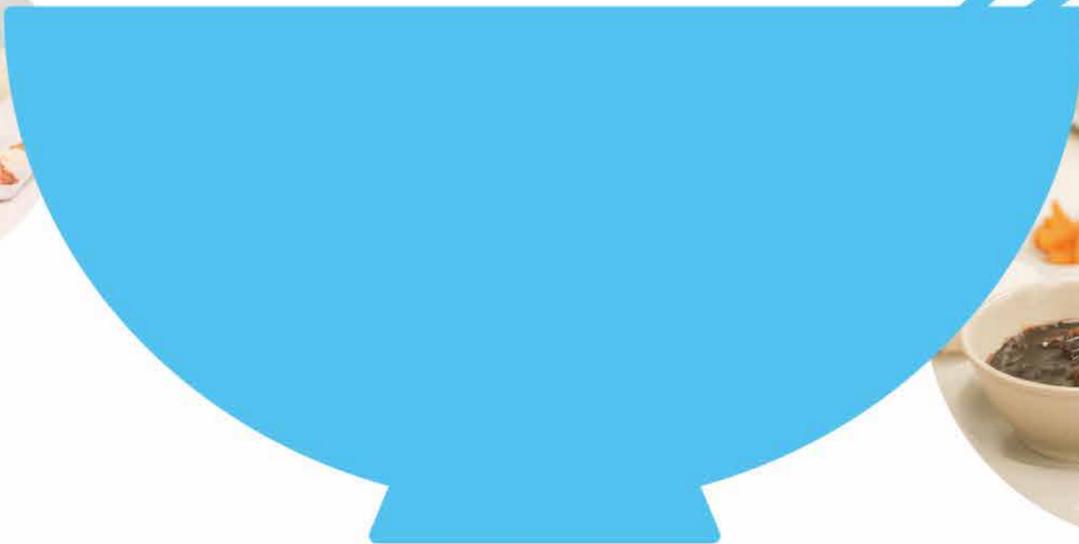
서울대학교발전재단 '천원의 식사' 모금 사업

누군가를 위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천원의 식사' 모금 사업은 학생들이 한 끼 1,000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식사를 해결하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금 사업입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채우고
내일을 채우는
천원의*식사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연구공원본관(940동) 2층
TEL. 02. 871. 8004 FAX. 02. 872. 4149 Email. snuf@snu.ac.kr
→ 온라인 후원하기: snu.or.kr/1000won

